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시 2011-10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2011-10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관 | 한국신문협회
책임 연구 | 구정화(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공동 연구 | 김경은(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연구 보조 | 임주희(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발행인 | 이성준
편집인 | 선상신
발행일 | 2011년 10월 31일 초판 제1쇄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001-7744 팩스 (02)2001-7740
www.kpf.or.kr

이 보고서는 201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비매품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관 | 한국신문협회
책임 연구 | 구정화(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공동 연구 | 김경은(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연구 보조 | 임주희(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본문 목차

요약문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과 한계	2
II. 이론적 논의	4
1. NIE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교육적 효과	4
1) NIE의 의미와 유형	4
2) NIE의 교육적 효과	7
2.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하위 내용	9
1)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	9
2)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학교교육에서의 유의미성	11
3)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	13
3. NIE,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학업성취	17
1)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	17
2)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연관성	20
III. 연구 방법	23
1. 문헌연구	23
2. 질문지 조사	24
1) 연구대상자 선정	24
2) 조사 내용	25
3) 조사방법 및 분석 방법	28
3. 전문가 자문	29

IV. 조사결과: 초등학생 분석 결과 30

- 1. 초등학생의 NIE 학습 유형 30
 - 1) NIE 관련 기본 사항 30
 - 2) 가정에서의 NIE 학습 유형 34
 - 3) 학교에서의 NIE 학습 유형 37
 - 4) 사교육에서의 NIE 학습 유형 39
- 2. 초등학생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관계 41
 - 1)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상태 41
 - 2) NIE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42
 - (1) 신문 읽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 42
 - (2) NIE 유무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45
 - 3) NIE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48
- 3. 초등학생의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관계 51
 - 1) 주관적 학업성취도 실태 51
 - 2) NIE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 52
 - (1) 신문 읽기와 주관적 학업성취도 52
 - (2)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유무와 주관적 학업성취 54
 - 3)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 55
- 4. 논의 57
 - 1) 주요 발견 57
 - 2) 초등 NIE 관련 함의 59

V. 조사결과: 중학생 분석 결과 61

- 1. 중학생의 NIE 학습 유형 61
 - 1) NIE 관련 기본 사항 61
 - 2) 가정에서의 NIE 학습 유형 65
 - 3) 학교에서의 NIE 학습 유형 68
 - 4) 사교육에서의 NIE 학습 유형 71
- 2. 중학생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계 73
 - 1) 자기 주도적 학습 상태 73
 - 2) NIE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74
 - (1) 신문 읽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 74
 - (2)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77
 - 3) NIE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80

3. 중학생의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관계	84
1) 주관적 학업성취 상태	84
2) NIE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85
(1) 신문 읽기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	85
(2)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	87
3) NIE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88
4. 논의	90
1) 주요 발견	90
2) 중등 NIE 관련 함의	92
VI. 결론	95
1. 요약	95
2. 제언	97
참고문헌	100
부록- 질문지	105

표 목차

<표 1>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하위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15
<표 2> 조사 대상의 구성	25
<표 3> 질문지 구성 내역	26
<표 4>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척도	27
<표 5> 집에서 일간신문 구독 유무	30
<표 6> 신문 열독 정도	31
<표 7> 신문을 읽은 기간	31
<표 8> 주로 읽는 신문의 면	32
<표 9> NIE를 들어본 경험	33
<표 10> 신문활용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33
<표 11> NIE에서 주로 이용하는 신문	34
<표 12>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35
<표 13> 가정에서 아버지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35
<표 14> 가정에서 어머니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36
<표 15>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37
<표 16> 학교에서 NIE 수업 참여유무	37
<표 17> 학교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하는 수업의 정도	38
<표 18> 학교에서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과목	38
<표 19>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39
<표 20> 사교육에서 NIE 수업 참여유무	40
<표 21> 사교육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하는 수업의 정도	40
<표 22> 사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41
<표 23> 응답자의 성별 자기 주도적 학습	42
<표 24> 신문 열독 정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43
<표 25> 신문 열독 기간과 자기 주도적 학습	44
<표 26> 주로 활용하는 신문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44
<표 27> 가정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45
<표 28> 아버지와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46
<표 29> 어머니와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46
<표 30> 학교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47
<표 31> 가정에서의 NIE 활동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49
<표 32>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49
<표 33> NIE 활동 목적과 자기 주도적 학습	50

<표 34> 응답자의 성별 주관적 학업성취	52
<표 35> 신문 열독 정도와 주관적 학업성취	53
<표 36> 신문 열독 기간과 주관적 학업성취.....	53
<표 37> 가정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성취.....	54
<표 38> 학교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성취.....	54
<표 39> 가정에서의 NIE 유형과 주관적 학업 성취	55
<표 40> 학교에서의 NIE 유형과 주관적 학업성취.....	56
<표 41> 집에서 일간신문 구독 유무	61
<표 42> 신문 열독 정도	62
<표 43> 신문을 읽은 기간	63
<표 44> 주로 읽는 신문의 면	63
<표 45> NIE를 들어본 경험	64
<표 46> 신문활용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64
<표 47> NIE에서 주로 이용하는 신문	65
<표 48>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66
<표 49> 가정에서 아버지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66
<표 50> 가정에서 어머니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67
<표 51>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68
<표 52> 학교에서 NIE 수업 참여유무	68
<표 53> 학교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하는 수업의 정도	69
<표 54> 학교에서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과목	69
<표 55>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70
<표 56> 사교육에서 NIE 수업 참여유무	71
<표 57> 사교육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하는 수업의 정도	72
<표 58> 사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72
<표 59> 응답자의 성별 자기 주도적 학습	74
<표 60> 신문 열독 정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75
<표 61> 신문 열독 기간과 자기 주도적 학습	75
<표 62> 주로 활용하는 신문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76
<표 63> 가정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77
<표 64> 아버지와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78
<표 65> 어머니와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79
<표 66> 학교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79
<표 67> 가정에서의 NIE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81
<표 68> 학교에서의 NIE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82
<표 69> NIE 활동 목적과 자기 주도적 학습	83

<표 70> 응답자의 성별 주관적 학업성취	84
<표 71> 신문 열독 정도와 주관적 학업성취	86
<표 72> 신문 열독 기간과 주관적 학업성취.....	86
<표 73> 가정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성취.....	87
<표 74> 학교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성취.....	88
<표 75> 가정에서의 NIE 유형과 주관적 학업성취	89
<표 76> 학교에서의 NIE 유형과 주관적 학업성취.....	89

요 약 문

이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NIE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 선택과 구성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신문을 학습의 소재나 내용으로 활용하는 신문활용수업(NIE)이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자의 학습계획과 진행 등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통제와 조절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초기에는 주로 성인교육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학교 학습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NIE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지(4개 영역 : 배경변인, 신문 읽기 및 가정, 학교, 사교육에서의 NIE 경험, 주관적 학업성취도 수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를 활용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교 6학년(539명)과 중학교 2학년(566명)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비추어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NIE 학습 유형,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가정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정도는 30~40% 정도로 나타났으며, 신문 읽기에서는 50~60% 정도가 신문을 읽고 있는 편이다. 반면에 가정, 학교, 사교육에서의 NIE 경험은 높지 않았다. 신문 읽기의 경우 주로 연예 및 스포츠면이 비율이 10명중에 7명꼴로 나타났고 정치, 경제, 사설을 읽는 비율은 100명에 1명 정도로 매우 낮았다. NIE 경험에서도 오려 붙이기 활동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초등학교가 중학생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3.27점(남학생: 3.23, 여학생: 3.32)인데 반해, 중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3.04점(남학생: 2.99, 여학생: 3.11)으로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

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도 초등학생은 3.50점(남학생: 3.53, 여학생: 3.49)이고, 중학생은 3.02점(남학생: 3.05, 여학생: 2.99)으로 나타나서 초등학생이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보다 중학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셋째,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신문 읽기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신문을 매일 읽는 집단과 읽어 온 기간이 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의 NIE 경험 유무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있어서는 가정에서의 NIE가 학교에서의 NIE보다 관련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NIE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NIE 경험 유무만큼의 큰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가정에서의 NIE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유형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차이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의 NIE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NIE 유형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NIE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었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신문 읽기가 주관적 학업성취도 인식과도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신문을 매일 읽는 집단과 읽어 온 기간이 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가정에서의 NIE 경험 유무가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학교와 가정에서의 NIE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확산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있어서는 신문 읽기 자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NIE 관련 교재나 활동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NIE 경험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는 학교에서 교과외 활동으로 가정에 부여할 수 있는 NIE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NIE 활동을 좀 더 정련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된 연구결과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NIE보다 가정에서의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보다 큰 관련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NIE 활동이 가지는 특징, 과정상에 들어나는 학습자의 변화 등에 대해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특징들을 학교 NIE 활동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NIE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가정이나 학교에서 NIE의 다양한 활동 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NIE 활동은 주로 오래 붙이는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NIE 활동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활동 유형으로 실제로 활용할 기회가 많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활동 유형들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부가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NIE 활동 유형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별 가이드북을 제작한다거나 교과별로 주요 학습 주제에 따른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I. 서론

1. 문제제기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방안을 논의한 이후, 학교교육에서는 교사의 수업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에 초점을 두면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평생 학습 이론에서 온, 자기 주도적 학습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한 관심을 받는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어떻게 길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나 제안이 약한 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완전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학습자의 대처 능력과 사고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학 논의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학습계획에 초점을 둔 것이기에 학교교육 측면에서 이 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학업 성취를 매개하는 한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학교교육에서 논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이론에서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특징은 교사보다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 선택과 구성 능력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신문을 학습의 소재나 내용으로 활용하는 NIE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NIE는 일반적으로 교사가 주도하여 학교에서 시행하기도 하지만, 신문을 읽고 그것을

매개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노력의 상당부분은 학생에게 주어지며, 다른 어떤 수업에 비해서라도 학습자의 노력이나 활동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수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NIE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NIE 이용 실태, NIE를 위한 수업 모형의 제시, 그리고 NIE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NIE는 주로 국어와 사회 등의 교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실험 연구에서 NIE가 학업 성취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NIE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단기적으로 분석하는 등 현재 이루어지는 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수업의 실천 결과를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미시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NIE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매개되어 일어나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NIE 경험 및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문 읽기 경험이 있거나 NIE를 해본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거나 비교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NIE가 갖는 새로운 학습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과 한계

이 연구의 목적은 NIE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증진을 통한 NIE의 학업 성취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경험한 신문읽기 경험 유무, NIE 학습 유무, 학습 유형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유형화하여 NIE 학습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 학원 등에서의 신문 활용 정도와, 그 유형화 등을 살펴보고 교육적 활동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들의 NIE 학습 유무, 학습 유형 등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그 하위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조사된 질문 내용간의 변인 관계를 설정하고, 변인간의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위의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NIE가 학생들의 자기주도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학교 및 가정, 교육의 현장에서 NIE 확산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문헌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및 외국의 초, 중학생의 신문 읽기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 중학생의 신문 읽기 및 NIE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질문지 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신문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성별, 가족 배경 변인, 학교 변인 등을 고려하고 신문 읽기나 NIE 경험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의 신문 읽기 및 NIE 활동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변인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질문지 조사를 통한 관련 변인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신문읽기 여부, NIE 학습 여부 및 학습 유형,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주관적 학업성취도, 기타 개인 관련 변인’ 등을 살펴볼 것이다.

넷째,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응답자의 신문읽기 및 NIE 경험, 유형 등의 형태 분석’, ‘응답자의 신문읽기 및 NIE 경험, 유형 등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문읽기 및 NIE 경험, 유형이 (주관적)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그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임의 표집 방법을 택하였기에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집 과정에서 가능한 지역별 할당 등을 통해 조사의 치밀함을 더하려고 하였으나, 이 한계로 인해 해석 등에서 유의해야 함을 밝힌다.

II. 이론적 논의

1. NIE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교육적 효과 -아리스M13.5

1) NIE의 의미와 유형 -아리스M12.5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신문을 활용한 교육)의 약자로, 학교나 가정, 사회단체 등에서 신문을 교재로 공부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다른 수업이 방법이나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달리 NIE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괄적으로는 매체활용 수업의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들어 영상매체의 발달과 학습자의 매체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매체의 활용 수업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신문 매체가 갖는 다양한 장점과 신문 기사 자료의 장점 등으로 인하여 NIE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신문은 학습자의 일상생활세계에 관련된 새로운 기사가 게재되고 지면의 구성이 다양하기에 재미있고 유익한 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신문이 갖는 매체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NIE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상희 외, 2009). 첫째, 신문에서(신문을 두고) 교육적인 요소를 찾아 학습하는 경우다. 둘째, 신문과(신문을 갖고) 친근해지기 위해 신문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거나 공작활동을 하는 경우다. 셋째, 신문처럼(신문을 보고) 개별 또는 모둠이 신문을 만들어보는 경우다. 넷째, 신문으로(신문을

읽고) 읽기-쓰기, 즉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우다. 다섯째, 신문 속에(신문을 통해) 다루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경우다. 정보를 다룸으로써 정보에 대한 탐색 능력, 분석 능력, 응용 능력 등 정보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여섯째, 신문마다(신문에서 찾은) 고유한 특징이나 주장을 분석해 신문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비판 능력을 배양하는 경우다. 이처럼 NIE는 교육방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신문이 교육매체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매체로서의 신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사회변화 속도와 정보 지식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잘 찾고 정리하여 자신의 의견 등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 부응하는 매체가 신문이며, NIE는 이러한 21세기형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정문성 외, 2004).

그러나 NIE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NIE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업 유형과 달리 NIE는 수업 절차가 강조되는 수업 방법이 아니라 신문을 활용한다는 것이 수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신문의 이용 정도가 다르기에 신문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이 NIE이고 어떤 것은 아닌가의 문제와,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여 NIE가 너무나 포괄적인 수업 방법이라는 측면이다. 이런 점에서 NIE를 수업 방법으로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포괄적인 NIE 정의 등을 고려하여 NIE를 유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NIE를 유형화하는 논의들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 최상희 외(2009)가 초등학생을 위한 NIE를 안내하면서 ‘NIE 실제하기’의 유형으로 크게 제시한 것은 3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신문을 활용한 읽기 수업’, 둘째는 ‘신문을 활용한 쓰기 수업’, 셋째는 ‘신문을 활용한 토론 수업’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신문을 매체로 하여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가와 관련된 분류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은 읽기 수업과 쓰기 수업 그리고 토론수업의 수단으로 신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NIE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Olson(1985; 정문성 외, 2008에서 재인용)는 NIE의 활동 단계를 고려하여 NIE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처음 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것으로 신문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찾아낸 정보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평가하기로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비판하여 평가하는 활동으로 수준 높은 활동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문을 찾고 이해하고 평가한 다음에 새롭게 내가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이것에는 특정 주제의 사설을 써 본다든지 하는 등의 매우 고차적인 수준의 사고력과 활동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NIE는 단순히 신문의 요소를 오려서 활동하는 것에서, 신문을 이용한 논술 수업이나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NIE 현실은 NIE 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점에서 좀 더 현실적인 유형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NIE 유형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NIE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NIE의 활동과 관련한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문의 요소를 활용해서 작품 등을 만들거나 1차 자료로서 신문 자체를 스크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활동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문의 요소를 찾아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조금 낮은 수준에서 신문에 관심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앞서의 이해 활동보다 좀 더 많고 깊이 있는 자료나 단서를 활용하여 신문을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으로 이는 신문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비평하는 등의 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해와 평가를 겸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여섯째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으로 만들기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이외에도 NIE를 하는 장소에 따라 가정, 학교, 학원 등의 학습 장소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것이며, NIE를 위해 사용하는 신문의 종류도 어린이 신문인지 일반 신문인지, 온라인 신문인지 오프라인 신문인지 등등을 고려하면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NIE의

유형화를 논의할 때는 앞서 정리한 NIE 활동 방법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 NIE의 교육적 효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NIE가 갖는 수업효과는 무엇일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IE를 지원하거나 강조하는 여러 나라의 신문협회에서 주장하는 NIE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신문협회에서 제시한 NIE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최상화·오주석, 1999): ①학생(자녀)의 인지능력 및 사고력 향상을 도와줌 ②미래시민으로서의 인간성·시민성 함양 ③학습과정에서 학생(자녀)의 창의성 신장을 촉진함 ④자신이 부딪치는 문제의 해결능력 함양 ⑤다양한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력 배양 ⑥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사회적응능력 육성 ⑦학생(자녀)간 협동학습의 기회를 주고, 협동심 함양 ⑧올바른 인성·성(性)·환경·진로·소비자교육 가능 ⑨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식 고취 ⑩정보·자료의 분석력과 활용능력 증진.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나라의 신문협회가 제안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검증된 NIE의 효과는 아닌 것이다. 이에 NIE의 효과와 관련하여 실험과 조사를 통한 몇 가지 경험 과학적 분석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NIE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능력과 더불어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종합적이며 창의적이고 통합교과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NIE 효과 측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NIE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한국신문협회, 2005):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줌 ▷사회 현상의 이해를 도와줌 ▷현대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터득시키고 학생들의 인격을 키워줌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의 비평능력 개발을 도와줌 ▷신문을 비평적으로 읽기 위한 욕구와 능력을 향상시켜 줌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성인매체로 여겨진 신문 읽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함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보조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함 ▷역사적 기록과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적극적인 읽기를 통해 실용적인 단어와 문장력의 증대를 도와줌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

교육을 뒷받침함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신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킴 ▷신문의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줌 ▷학생들에게 글쓰기 기회를 제공함 ▷다양한 사실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함 ▷주체성을 제고시키며,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바람직한 독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함¹⁾.

이런 연구들은 개별적인 연구로서 한국에서 NIE가 갖는 교육적 효과를 나름대로 서술하여 NIE에 대한 생명력을 높여주면서 NIE 이론 형성과 실천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서태열 외(2009)가 행한 NIE 수업 관련 실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 지리 영역에 대한 일련의 수업을 행하게 하고, 그 수업 전후에 의사소통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NIE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학업 성취도(특히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효과를 미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6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NIE 수업반(실험반)과 일반 수업반(비실험반)으로 나누어 실험을 한 후 읽기·쓰기·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을 사전 및 사후 비교·평가한 실험이었다. 이 연구 결과, NIE 수업을 행한 실험반 학생들의 성취도는 100점 만점 기준 47.73점으로, NIE 수업을 하지 않은 비실험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40.13점보다 7.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NIE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NIE 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보면 NIE 수업은 학생들의 창조적인 글쓰기, 에세이나 보고서 쓰기, 능동적으로 읽고 의미 구성하기 등에서는 비실험반 학생들보다 특히 더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어서 NIE의 학업 성취에 대한 영향력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글 쓰기 읽기 등의 의사소통 능력과 연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주목할 만한 연구는 정문성 외(2010)가 행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NIE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실험 연구이다. 이들은 연구 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비교 집단 25명, 실험 집단 27명)과 중학교 3학년(비교 집단

1) NIE의 효과 측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행한 것이 있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NIE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한 것임.

31명, 실험 집단 32명), 고등학교 1학년(비교 집단 37명, 실험 집단 36명)을 대상으로 6차시에 걸쳐 사회과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동일한 수업 방법인 직접 교수법을 시행하면서 실험 집단의 경우 신문 매체를 수업에 활용하고, 비교집단의 경우는 신문 매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이 행한 NIE 수업 실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NIE 수업의 학업 성취 총 점수를 놓고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실험 집단 7.3704, 비교 집단 5.5200)과 중학생(실험 집단 6.6875, 비교 집단 6.3871), 고등학생(실험 집단 6.6486, 비교 집단 5.1944) 모두 NIE를 적용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고급사고력 측정 결과 초등학생(실험 집단 3.8889, 비교 집단 1.9600)과 중학생(실험 집단 3.3438, 비교 집단 2.0968), 고등학생(실험 집단 3.4054, 비교 집단 2.3333) 모두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는 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그렇지 않은 수업에 비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은 고급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은 그 실험 목적에서 NIE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NIE를 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단기적으로 분석하는 등 현재 이루어지는 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수업의 실천 결과를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등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NIE 관련 실험 결과는 NIE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습자의 내부적인 측면의 변화를 고려한 것인지, 단순히 새로운 수업의 투입에 의한 효과인지 등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점에서 단순히 NIE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 아니라, NIE 경험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NIE의 새로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하위 내용

1)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교육학 논의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설계와 실행 능력을 강조하면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미래 사회에 스스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성인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강조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단순히 성인기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영어의 'self-directed learning'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 중 대표적으로 Knowles(1975)는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대하여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Guglielmino(1977)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욕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 학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선택한 후 실질적인 학습을 실행하며 그 결과와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Zimmerman & Schunk(1989)는 기존 학자들과 달리 ‘자기조절적 학습(self-regulated learning)’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조직화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학습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또한 Long(1992)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관련하여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강력한 타인의 지도를 다소 받거나 혹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학습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의 통제와 관리에 의하여 어떤 학습에 임하고 집중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비교하며 대조하는 일련의 메타인지적 행동을 수행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self-directed learning ability)에 대해서는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자료 및 자원을 동원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학습과정 등에서 발생하

는 학습자의 자유 의지와 자율적인 통제 수준”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러한 측면을 학습자가 실행하는 정도가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된다. 하지만 학자들의 세부 논의를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학습 능력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양애경 외(2010)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관련하여 교육의 목표로 보는 관점, 교육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 교육의 목표와 과정을 모두 고려하는 관점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교육의 목표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보는 경우에는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나 학습자 내부의 의식변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학습을 통해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교육의 과정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학습의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해 나가는 수업 전략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교수학습과정에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NIE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기에 목표와 과정으로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을 채택할 것이다.

2)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학교교육에서의 유의미성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교교육보다는 학교 이외의 성인교육이나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논의하는 것이 교수학습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왜곡하고 학교 교육의 특성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 관련한 논의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최근 강조되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이나 구성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의 개혁 방안으로 소개되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심혜숙 외, 2006). 이에 학습하는 방법

의 학습(learning how to learn)의 강조와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교에 다니는 시기의 학습자에게도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학교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습을 주도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었기에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관련한 교수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교육이론에서 진행되었다.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그런데 최근 교육학에서 강조되는 평생교육학 논의에서는 교수보다는 학습자의 특징이나 학습 자체가 주목을 받았고, 이에 교육의 핵심을 교수 보다는 학습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고전환을 고려하게 되었다(김신일, 2001; 한승희, 1999).

이렇게 교수보다 학습에 초점을 두는 논의 속에서 나온 것이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 조절과 통제, 그리고 자기 설계 등이 강조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조된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논의를 이끌어 낸 Knowles(1975)의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은 어떤 유형의 학습이든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학교교육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고, 본격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문서에서 구체화되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학교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구성주의 지식관의 등장과도 맞물린다(배은주, 2004: 249-250). 구성주의 지식관이란, 학습내용이 객관화된 지식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보며 지식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습에서는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 학습의 과정이나 목표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최근 들어 학교교육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 주도적 학습 관련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학습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혹은 학습특성적 요인에 관한 연구(김홍원, 1996; Candy, 1991; Long, 1992), 측정도구를 개발하려는 연구(노국향, 1999; 박한숙, 2003),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양애경 외, 2010; 정미경, 2007; 허남진, 2004)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교육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기에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중요성이 학교에 다니는 시기의 학생들에게도 유의함을 보여준다.

3)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와 달리 구체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 혹은 하위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는 주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자기 주도적 학습 논의가 강조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라는 개인적 측면의 능력과 이러한 측면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이다(양애경 외, 2010).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인지 및 초인지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학습과정의 선택, 통제, 창조하는 자기조절 학습을 말하고 있다(양애경 외, 2010; 송인섭, 2006; 신종호 외, 2006).

그런데 학자들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요소 혹은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다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하위영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자들이나 연구 단체 등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구성과정에서 주로 설정되었다.

우선 Guglielmino(1977)는 자신이 주장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8가지 측면의 하위 요소를 제시되었다. ‘학습개방성, 자아개념성, 솔선수범성, 책임감, 학습열성도, 미래지향적인 자기 이해도, 창의성, 자기평가력’이 해당된다. Baumert, et al. (1998)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인지적 요소와 더불어 학습 동기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학습전략, 동기유발, 목표지향성, 자아개념, 행동통제, 사회적 능력, 그리고 학습에 대한 잠재력’이라는 일곱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한다. 학습전략은 학습 정보에 대해 학습자가 얼마나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처리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동기유발은 자기 주도적 능력 개발에 필요한 요소로 본 것이고, 목표 지향성은 동기유발과 관련하여 학교공부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자아개념은 자신감, 자율성, 자기 효능감과 관련성이 높고, 행동 통제 전략은 노력과 끈기를 통한 자발적인 자기 행동에 대한 절제 등과 관련된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은 협력이나 경쟁 등의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타인과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며, 학습에 대한 잠재력은 학습에 대한 개인 능력의 가변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Williamson(2007)은 기존의 하위영역이 너무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좀 더 단순화하여 5가지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학습전략, 학습활동, 자신에 대한 인지, 평가, 대인관계기술 등이 해당된다.

외국의 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척도 개발이 연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연구기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Long(1992)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척도를 만들고자 한 양애경(2007)은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척도 개발에 반영하였다. 첫째는 ‘주체성(초인지)’으로, 이는 주어진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 및 조절하며 학습을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성취지향성’으로, 이것은 주어진 학습 상황에서 호기심과 성취감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성공감에 대한 확신과 성취감에 대한 자부심, 독립성 및 신념의 정도를 말한다. 셋째는 ‘내재적 동기’로 주어진 학습 상황에서 탐구심, 흥미, 요구 등이 내재화 되어 긍정적으로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신념과 의욕의 정도를 말한다. 넷째는 ‘과제해결력’으로 주어진 학습상황에서 목표를 정하고 학습의지를 갖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과제 해결을 잘 수행하는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요소의 구성과 측정 도구는 개인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석재 외, 2003)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생애능력의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애 능력으로 요구되는 것을 크게 ‘기초문제력, 핵심능력, 시민의식, 직업 특수능력’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핵심능력에 다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으로 구분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하위요소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행동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하위요소 설정은 기존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능력

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전 요소들을 검토 한 후에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하위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연구자	정의	하위요소	특징
Knowles (1975)	SDL=타인의 조력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	스스로 -학습욕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인적, 물적 자원 확보 -학습전략 선택 -실행 -평가	학습과 정적 측면
Long (1989)	SDL의 결정적 요소는 학습자의 자유의지-심리적 자유와 통제		
Gugliemino (1977)	8가지 인성적 특성=심리학적 변인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자기주도성 검사:SDL의 전제조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율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서의 솔선수범과 독립성 -책임감의 수용 -학습에 대한 열정 -창의성, 미래지향성 -기본적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심리적 측면
Oddi (1986)	인성특성	-적극적으로 행위하고자 하는 욕구 -인지적 개방성 -학습에 대한 열정	심리적 측면
Bouchard (1994)	교육학적 변인/심리학적 변인/체제적 변인의 통합		통합
Garrison (1997)	비판적 사고와 관련지음	-자기관리(과업통제): 성숙한 학습자에게 더 적절 -자기모니터링(인지적 책임감): 초인지, 인지 -동기화(참여동기, 과업동기) 참여동기: 특별한 목적수행과 활동에 대한 의도를 수행하도록 함 과업동기: 학습활동과 목적의 지속성에 초점	
Tough (1967, 1979)	자기 주도적 학습모형(13단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학습에 있어 교사를 제외한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음	교육학적 변인-학습프로젝트의 계획, 실행 1)학습할 구체적 지식, 기술을 결정 2)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법, 자원 및 장비를 결정	학습과 정적 측면

		<p>3)학습할 장소 결정 4)구체적인 시간, 학습대상 선정 5)학습을 언제 시작할지 결정 6)학습의 진행속도 결정 7)현재 개인의 지식 및 기술수준, 또는 진척도 평가 8)학습을 방해하는 요인, 진행중인 학습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 찾아냄 9)바람직한 자원, 장비를 획득하거나 바람직한 학습장소, 자원에 접근 10)학습을 위한 교실을 마련하거나 학습준비에 필요한 다른 물리적 조건들을 배치 11)인적, 비인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비축하거나 습득 12)학습시간 모색 13)학습동기 고양을 위한 단계설정</p>	
Spear & Mocker (1984)	환경조직화의 개념:SDL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보다 큰 체제 내에 존재하므로 하나의 체제적인 변인으로 받아들여야 함	체계적 변인	
Brockett & Hiemstra (1991)	개인책임성향 모델을 통해 학습과정과 인성적 측면을 통합 개인책임=상황과 환경에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통제력 SDL=학습자가 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것에 책임지고 수행하는 과정으로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작용할 수 있음	개인책임=>자기 주도적 학습과정 + 학습자의 자기주도성=>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	학습 과정 + 인성 측면
노희정 (2003)	인지, 동기, 행동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주도성을 높여줌으로써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학습에 대한 과정적 접근		
김흥원 (1996)	학생스스로 인지, 정서, 행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신의 학습 성취를 높이려는 능력	<p>-인지적 능력: 인지전략과 메타인지, 인식론적 믿음, 지식 -정서적 능력(자아, 동기, 의지):공정적 자아개념, 자기정체성, 자기효능감, 자기통제감 -행동적 능력:학습목적달성에 적합하게 환경을 이용, 통제하는 능력</p>	심리적 측면

* 출처 : 이석재 외(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초기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소 세 가지(학습계획, 학습 실행, 학습평가)를 구성한 후 학습계획에서는 ‘욕구 형성/ 목표 설정/ 자원파악’, ‘학습 실행’에서는 ‘학습전략 선정 능력/ 과제 집착력’, ‘학습평가’에서는 ‘평가와 수행의 피드백’이라는 측면으로 하위요소를 다시 나누었다. 그러나 최종 측정도구를 구성하여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좀 더 정교화하여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 능력 요소 세 가지(학습계획, 학습 실행, 학습평가)는 유지하면서, 학습계획에서는 ‘학습욕구진단/ 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으로 재조정하였고, ‘학습 실행’에서는 ‘기본적 자기 관리 능력/ 학습전략 선택/ 학습 실행의 지속성’으로 재조정하였으며, ‘학습평가’에서는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자기성찰’로 재조정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자기 주도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정교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초점을 두어서 하위요소에 따라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하위요소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리한 점도 유용하다. 이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논의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3. NIE,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학업성취

1)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교육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주된 화두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학생의 성장을 보여주는, 즉 교육의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학업성취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학업성취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 관점과 인지적 영역만을 포함하

는 협의적 관점으로 규정된다(Bidwell & Kasarda, 1980). 비인지적 성취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객관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지적인 영역에 한정해서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성취 역시 인지적인 영역에 한정한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학자마다 학업성취의 결정 요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Diperna(1999)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는 학습자 변인, 환경 변인, 수업 변인이 포함되고 각 변인들에 대해 측정하는 하위 변인들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 변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변인에는 동기, 태도, 적성, 선수학습, 성, 인종, 자아개념과 같은 변인들이 사용되었고, 환경 변인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기대, 가정환경, 교실환경, 동료 등과 같은 변인들이 연구되었고, 수업과정 변인으로는 수업의 질이나 양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오성삼·구병두(1999)는 해방 이후 국내 대학원에서 통과된 석·박사 학위논문들 가운데 학업 성취와 관련된 813편을 수집하여 이들 가운데 메타분석이 가능한 587편의 논문을 그 내용에 따라 가정 변인, 학교 변인, 교사 변인, 학생 변인, 교수-학습 변인의 5개 변인군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학업성취에 가장 큰 효과 크기를 지닌 변인군은 교수-학습 변인군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 밖에 학생 변인군, 교사 변인군, 가정 변인군, 학교 변인군의 순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느냐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 방식과 관련하여 구성주의 지식관이 강조되면서 학습에서의 학생들의 능동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각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교사주도 학습에 비해 학업성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내적 강화가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학습에 대한 애착과 참여 동기와 적극성이 증진되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는 것이다(양애경·조호제, 2010). 이에 실제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Morris(1995)는 비전통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두 변수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ng & Walsh(1992)는 1966년부터 1991년까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관련한 11개의 박사학위 논문을 메타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esque(1999)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교수-학습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방법을 통한 실제적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혜, 2009에서 재인용).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성취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학생의 학업성취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미자, 2000; 양명화·황정규, 2002; 박현정, 2005; 유효현, 2005; 양애경·조호제, 2010).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학습자는 더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가르치는 것을 기다리는 학생들보다 더욱 뚜렷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므로 학습내용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발휘되는 능력이 곧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양애경과 조호제(2010)는 전국의 각 시도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24개교를 무선 표집, 각 학교별로 2개 학급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1,006명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학생 집단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미경(2007)은 경기도 지역 소재 대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 수준에 따라 대표적인 인지적 영역의 학업성취에 해당되는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조절학습과 창의적 사고력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 주도적 학습의 수준에 따라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수업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수-학습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how to learning)하는 것이 가능한

교수-학습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해당 전략이 교수-학습 과정 속에 포함하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연관성 논의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연관성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관련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우선, NIE의 교육적 효과를 언급한 연구들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수업에서 신문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NIE는 앞에서 진술된 것에서 보듯이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에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한국신문협회, 2005). 그 중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줌’, ‘신문을 비평적으로 읽기 위한 욕구와 능력을 향상시켜줌’, ‘주체성을 제고시키며,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킴’과 같은 효과는 직접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 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조성민 외(2001) 역시 NIE의 활용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 스스로 찾아서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탐구 능력을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성태모,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NIE의 경험자체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NIE를 활용한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일정부분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현숙(2003)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문을 교재로 하는 시사발표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사회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이 제출한 수업 자료와 면접을 통해 그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선정하고 분석하며,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과정인 ‘시사발표²⁾’는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며 발표를 통하여 자신이 구성한 지식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역시 자기 주도적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별화 학습, 논리적으로 글쓰기, 고등 사고력 신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가 모든 학생에게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사회과에 흥미가 있고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김효희(200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문포트폴리오를 지리 수업에 진행한 후,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강경원·노정선(2000)은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수업에 NIE 수업모형을 고안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함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NIE 경험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NIE의 유형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에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연구결과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된 NIE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NIE의 활동 단계를 고려한 유형 단계로 본다면, 신문을 찾고 이해하고 평가한 다음에 새롭게 내가 만들어 보는 활동 즉, 매우 고차적인 수준의 사고력을 요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NIE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관련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김주후·남궁지영(2008)은 국가수준에서 수행된 학교종합평가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학생 11,763명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체 변량의 95% 이상이 학생 수준에서 설명됨이 밝혀졌고, 학생수준의 변인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기회 제공, 개별학생 특성에 대한 배려, 교과외 활동 참여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 시사발표는 신문을 통하여 사회시간에 배운 개념이나 이론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 발표하거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기사를 자신의 논리로 재구성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김주후 외, 2006).

한편, 자기 주도적 학습은 인지적 측면, 동기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학습과정의 선택, 통제, 창조하는 자기조절 학습을 의미하는데 이때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유의미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송경애, 2006; 이지혜, 2009).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학습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이분화된 동기가 아니라 외적인 동기요인들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기결정성을 가질 수 있으며, 동기들의 관계도 단순히 대립적이기 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는 학습상황에서 내적으로 동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다고 여겨 발현된 동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NIE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되는 신문에서 정보를 찾는 선택 행위를 학생들에게 부여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과적인 지식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의 요인으로 읽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독서 방식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조미아, 2007), 독서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육기간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조미아, 2006)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최근 NIE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글 쓰고 읽기 등의 의사소통 능력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서태열 외, 2009)에서, NIE의 초기 단계가 신문을 읽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NIE의 경험과 유형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Ⅲ.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NIE와 관련된 유관기관(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첫째, NIE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해당되는 NIE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NIE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과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학습자를 대상으로 NIE의 경험과 유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현실 적합성 기반해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연구결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NIE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논의 가능한 효과와 실제 검증된 효과를 구별하여 함께 살펴보았고,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켰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는 설문지 구성에 있어 ‘신문 읽기 및 NIE 경험’에 관한 문항 구성에 활용되었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해당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관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의 등장 배경을 포함한 학교교육에서의 유의미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검토, 학습을 위해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측정 가능한 척도를 선택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향후 가정, 학교 등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NIE 지도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는 설문지 구성에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관한 문항 구성에 활용되었다.

셋째,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변인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필요하다. 이에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킴으로서 학습 과정의 유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NIE의 교육효과, 실제 사례 연구, NIE 학습 과정과 자기 주도적 학습 요인과의 관련성 등의 다양한 논의를 고려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는 설문지 구성에 있어 ‘개인관련 변인’, ‘주관적 학업성취도 수준’에 관한 문항 구성에 활용되었고, 변인간의 분석방법을 결정하는데 활용되었다.

2. 질문지 조사

1) 연구대상자 선정

NIE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에서 지역별 특성과 경제적 수준, 성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15개 학교를, 중학교의 경우 16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급별로 1개 학급을 임의 표집 하였다. 통계적 결과의 유의성을 위해 전수조사 및 대상자의 주요 특성별 할당 표집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나 현실적인 제약들로 본 연구에서는 임의 표집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 표집시 서울의 경우 강북과 강남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당 권역별 비슷한 수의 학교를 선정하였고, 경기 및 인천의 경우에도 지역별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주요 교육청의 학교가 표집 되도록 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성별 균형을 위해 중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을 주요 대상학교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조사대상은 초등학생은 서울 219명, 경기 206명, 인천 114명으로 총 539명이고, 중학생은 서울 243명, 경기 219명, 인천 104명으로 총 566명이다 (<표 2> 참조).

〈표 2〉 조사 대상의 구성

(단위: 명 (%))

학교	성별	지역			합계
		서울	경기도	인천	
초등학생	남자	117(21.7)	103(19.1)	61(11.3)	281(52.1)
	여자	102(18.9)	103(19.1)	53(9.8)	258(47.9)
	계	219(40.6)	206(38.2)	114(21.1)	539(100.0)
중학생	남자	111(19.6)	129(22.7)	60(10.6)	300(53.0)
	여자	132(23.3)	90(15.9)	44(7.7)	266(47.0)
	계	243(42.9)	219(38.6)	104(18.3)	566(100.0)

2) 조사 내용

NIE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증진을 통한 NIE의 학업 성취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선행 연구 분석을 근거하여 질문지는 크게 4개 영역-배경변인, 신문 읽기 및 NIE 경험, 주관적 학업성취도 수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으로 구성하였다(<표 3>, 부록 참조).

〈표 3〉 질문지 구성 내역

항목	내용		문항
개인 관련 변인	성별, 학교급, 거주 지역, 신문구독여부		I - 1, 2, 3, 4
신문 읽기 및 NIE 경험	NIE에 대한 인식유무, 신문읽기 경험(빈도, 경력, 내용)		I - 5, 6
	가정에서의 NIE 정도(빈도, 대상), 활용된 유형		II - 1, 2, 3
	학교에서의 NIE 정도(빈도, 과목), 활용된 유형		II - 4, 5
	학원 및 과외에서 NIE 정도(빈도), 활용된 유형		II - 6, 7
	NIE 사용 이유, 선호되는 매체 형태		II - 8, 9
주관적 학업성취도 수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III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IV - 1, 2, 3, 4, 5
		목표 설정	IV - 6, 7, 8, 9, 1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IV - 11, 12, 13, 14, 15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IV - 16, 17, 18, 19, 20
		학습전략선택	IV - 21, 22, 23, 24, 25
		학습실행의 지속성	IV - 26, 27, 28, 29, 3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IV - 31, 32, 33, 34, 35
		자기성찰	IV - 36, 37, 38, 39, 40

신문 읽기 및 NIE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NIE에 대한 인식 유무, 구체적인 신문 읽기 경험(빈도, 경력, 내용), 가정, 학교, 학원 및 과외에서 사용되는 NIE의 정도와 유형에 대해 질문하였다. 더불어 NIE의 사용 이유와 선호되는 매체 형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NIE 유형의 경우 NIE 유형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NIE 현실을 고려해서 NIE 활동 방법을 중심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6가지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과목에 대한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 검사도구로는 각 학년말 학업성취도 결과와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검사, 각 학년의 평균 학점, 형성평가, 표준화검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별로 학생 개인의 성적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 등으로 객관적 정보를 제시받기가 어렵고, 학교간 학업성취도 결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과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로 5점 척도(매우 못하는 편, 못하는 편, 보통인 편,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주관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 신문구독

여부를 사용하였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석재 외, 2003)에서 개발한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소를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3가지로 설정하고 각 하위요소별 행동 지표 문항들을 설정하고 이를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정교화 하였다는 점에서, 하위요소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측정을 위한 문항은 학습계획의 경우 15문항, 학습실행의 경우 15문항, 학습평가의 경우 10문항으로 총 40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본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제시된 신뢰도를 보면, 크론바하의 알파계수가 학습계획 문항의 경우 .859, 학습실행 문항의 경우 .870, 학습평가 문항의 경우 .751로 나타났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문항에 대해서는 크론바하의 알파계수가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척도

능력 요소	하위요소	문항번호 ³⁾	Cronbach's α
학습계획	학습욕구진단	IV- 1, 2, 3, 4, 5	.859
	목표 설정	IV- 6, 7, 8, 9, 1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IV- 11, 12, 13, 14, 15	
학습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IV- 16, 17, 18, 19, 20	.870
	학습전략선택	IV- 21, 22, 23, 24, 25	
	학습실행의 지속성	IV-26, 27, 28, 29, 30	
학습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IV-31, 32, 33, 34, 35	.751
	자기성찰	IV-36, 37, 38, 39, 40	
전체			.935

3) 1, 13, 29, 30, 32, 33번 문항의 경우 부정적인 질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수 계산 시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3) 조사방법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해당 기간에 선정된 31개 학교에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보다 원활한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별 설문조사에 참여할 교사 1인을 배정, 설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은 총 1,105부이다. 수집된 자료는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고, 분석 시 SPSS 19.0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전체적인 반응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이 포함된 기술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하위 집단별 반응 경향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두 집단간의 평균을 비교할 경우에는 t-test를,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할 경우에는 ANOVA 및 Scheffe test를, 명목변인인 집단의 검정을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NIE 현황, NIE 경험 및 유형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NIE 경험 및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주된 연구 초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각각에 맞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첫째, 학생들의 NIE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NIE의 인식 유무, 신문읽기 경험, NIE 사용 이유, 선호되는 매체의 형태, 가정·학교·학원에서의 NIE의 활용 정도 및 유형에 대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이 포함된 기술통계치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 학교급별 및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이나 t-test를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신문 읽기와 NIE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NIE 경험 및 유형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종속 변수로, NIE 경험의 정도, 유형별 NIE 경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평균차 검증(t-test 및 ANOVA)을 활용할 것이다. 셋째, NIE 경험 및 유형이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종속 변수로 NIE 경험의 정도, 유형별 NIE 경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평균차 검증(t-test 및 ANOVA)을 활용할 것이다.

3.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 해석에서의 적절성을 높이고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NIE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의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의 주된 내용은 조사된 질문지 내용의 분석방법에 관한 것과 분석 결과에 대한 것이다.

1차 자문은 분석 방법과 관련한 것이다. 질문지 응답 내용에 대해 적절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본 연구의 적합성 및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9월중에 NIE 연구 및 양적 연구 방법 전문가 2인에게 질문지, 질문지 응답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연구진과 함께 분석 방법에 관한 회의를 실시한다.

2차 자문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에 대한 논의는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이에 연구 결과 분석 후에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NIE 위원회 위원 3인과 함께 회의를 실시한다. 이는 해당 전문가와 함께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Ⅳ. 조사결과: 초등학생 분석 결과

1. 초등학생의 NIE 학습 유형

1) NIE 관련 기본 사항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집은 일간(매일 오는) 신문을?’이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받아 본다/ 받아 보지 않는다’라는 응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집에서 일간신문 구독 유무

(단위: 명, (%))

성별	받아본다	받아보지 않는다	전체	통계치
남자	126(45.5)	151(54.5)	277(100.0)	$\chi^2 = 3.75$ $p = .544$
여자	111(42.9)	148(57.1)	259(100.0)	
전체	237(44.2)	299(55.8)	536(100.0)	

전체적으로 집에서 일간신문을 받아보는 학생은 44.2% 정도이다. 응답자 중에서 남학생의 경우 일간신문을 받아보는 비율이 45.5%이고 여학생은 42.9%이다. 집에서 일간신문을 받아보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신문을 받아 보느냐의 유무보다는 사실상 응답 대상자가 신문을 읽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을 읽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신문 열독 정도

(단위: 명, (%))

성별	매일 읽는 편	가끔 읽는 편	거의 읽지 않는 편	전체	통계치
남자	51(18.6)	120(43.8)	103(37.6)	274(100.0)	$\chi^2 = 5.070$ $p = .079$
여자	30(11.6)	125(48.4)	103(39.9)	258(100.0)	
전체	81(15.2)	245(46.1)	206(38.7)	532(100.0)	

응답자 전체 중에서 신문을 ‘매일 읽는 편’은 15.2%, ‘가끔 읽는 편’은 46.1%, ‘거의 읽지 않는 편’은 38.7%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매일 읽는 편’에 18.6%, ‘가끔 읽는 편’에 43.8%, ‘거의 읽지 않는 편’에 37.6%가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매일 읽는 편’에 11.6%, ‘가끔 읽는 편’에 48.4%, ‘거의 읽지 않는 편’에 39.9%가 응답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신문을 읽는 경향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신문을 읽어온 기간도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앞서 신문을 읽는 정도에서 ‘거의 읽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신문을 읽은 기간

(단위: 명, (%))

성별	1~2년	3~4년	5년 이상	전체	통계치
남자	57(36.3)	72(45.9)	28(17.8)	157(100.0)	$\chi^2 = .434$ $p = .805$
여자	52(34.9)	66(44.3)	31(20.8)	149(100.0)	
전체	109(35.6)	138(45.1)	59(19.3)	306(100.0)	

신문을 읽어온 기간에 대하여, 전체의 35.6%가 1~2년, 45.1%가 3~4년, 19.3%가 5년 이상이라고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는 ‘1~2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3%, ‘3~4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9%, ‘5년 이상’이라고 한 비율이

17.8%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1~2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 '3~4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3%, '5년 이상'이라고 한 비율이 20.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현재 신문을 읽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신문을 읽은 기간이 더 긴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45% 정도가 신문을 읽고 있는지 '3~4년 정도'라고 하여 수도권 초등학교 중 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 2명 중 1명꼴로 3~4학년 시기에 신문을 처음 읽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이 주로 읽는 신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는 70.5%가 '연예, 스포츠' 면을, 그 다음으로 7.8%가 '경제' 면을, 5.4%가 '문화' 면을, 4.8%가 '정치' 면을 주로 본다고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65.1%가 '연예, 스포츠' 면을, 그 다음으로 10.7%가 '문화' 면을, 6.0%가 '경제' 면을, 4.7%가 '정치' 면을 주로 본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주로 보는 신문의 면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0명 중 7명 정도가 '연예, 스포츠' 면을, 2명 정도가 '정치, 경제, 문화, 사실' 등을 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이나 정치면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표 8> 주로 읽는 신문의 면

(단위: 명, (%))

성별	정치	경제	문화	연예 스포츠	사실	기타	전체	통계치
남자	8 (4.8)	13 (7.8)	9 (5.4)	117 (70.5)	3 (1.8)	16 (9.6)	166 (100.0)	$\chi^2=4.977$ $p=.5419$
여자	7 (4.7)	9 (6.0)	16 (10.7)	97 (65.1)	1 (0.7)	19 (12.8)	149 (100.0)	
전체	15 (4.8)	22 (7.0)	25 (7.9)	214 (67.9)	4 (1.3)	35 (11.1)	315 (100.0)	

학생들이 NIE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NIE를 들어본 경험

(단위: 명, (%))

성별	있다	없다	전체	통계치
남자	106(38.5)	169(61.5)	275(100.0)	$\chi^2 = 9.38$ $p = .375$
여자	108(42.7)	145(57.3)	253(100.0)	
전체	214(40.5)	314(59.5)	528(100.0)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40.5%가 NIE를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남학생의 경우 38.5%가 여학생은 42.7%가 NIE를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NIE를 들어 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NIE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30.3%가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8.6%가 ‘논술이나 글짓기 등을 잘하기 위해서’ 라고 하며, 17.9%가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14.6%가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해서’, 11.3%가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2.2%가 ‘외국어나 한문 등을 익히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이런 전체적인 경향성은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표 10〉 신문활용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성별	교과 내용 이해	논술 글짓기	사회 현상 이해	사고 능력 향상	외국어 한문 학습	재미있는 학습	기타	전체	통계치
남자	25 (10.5)	45 (19.0)	69 (29.1)	38 (16.0)	6 (2.5)	36 (15.2)	18 (7.6)	238 (100.0)	$\chi^2 = 8.00$ $p = .238$
여자	26 (12.1)	39 (18.1)	68 (31.6)	43 (20.0)	4 (1.9)	30 (14.0)	5 (2.3)	215 (100.0)	
전체	51 (11.3)	84 (18.6)	137 (30.3)	81 (17.9)	10 (2.2)	66 (14.6)	23 (5.1)	452 (100.0)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는 신문이 많아지면서 NIE에서도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IE를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문에 대하여 종이 신문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신문으로 나누어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79.6%가 ‘종이신문’을 주로 이용하고, 20.4%가 ‘인터넷 신문’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여 종이신문을 활용하여 NIE를 하는 정도가 더 높은 편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80.2%가 ‘종이신문’을, 여학생의 79.0%가 ‘종이신문’을 주로 이용하여 NIE를 한다고 하여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1> NIE에서 주로 이용하는 신문

(단위: 명, (%))

성별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전체	통계치
남자	206(80.2)	51(19.8)	257(100.0)	$\chi^2 = .098$ $p = .825$
여자	196(79.0)	52(21.0)	248(100.0)	
전체	402(79.6)	103(20.4)	505(100.0)	

2) 가정에서의 NIE 학습 유형

학생들이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유무, 이용 유형 등을 질문하였다. 우선 초등학생들이 신문을 활용하여 숙제 등의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NIE를 하는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46.1%가 ‘때때로’라고 하였으며, 31.2%가 ‘거의 없음’, 14.4%가 ‘전혀 없음’, 7.8%가 ‘자주’, 0.6%가 ‘매우 자주’에 응답하였다. ‘거의 없음’과 ‘전혀 없음’을 합한 45.6%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54.4%정도는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없음’과 ‘전혀 없음’을 합한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51.1%, 여학생은 39.6%로 나타나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정도가 조금 더 높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다.

〈표 12〉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단위: 명, (%))

성별	매우 자주	자주	때때로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통계치
남자	1(0.4)	23(8.3)	112(40.3)	93(33.5)	49(17.6)	278(100.0)	$x^2=4.035$ $p=.544$
여자	2(0.8)	19(7.4)	135(52.3)	74(28.7)	28(10.9)	258(100.0)	
전체	3(0.6)	42(7.8)	247(46.1)	167(31.2)	77(14.4)	536(100.0)	

구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경험 정도를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1.8%가 ‘매우 자주’에, 5.1%가 ‘자주’, 23.7%가 ‘때때로’라고 하였으며, 33.7%가 ‘거의 없음’, 35.8%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의 없음’과 ‘전혀 없음’을 합한 정도가 69.5%이기에, 나머지 30.5%정도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우 자주’와 ‘자주’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여학생(3.6%)에 비하여 남학생(9.8%)의 비율이 높아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편이다.

〈표 13〉 가정에서 아버지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단위: 명, (%))

성별	매우 자주	자주	때때로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통계치
남자	9(3.4)	17(6.4)	54(20.4)	90(34.0)	95(35.8)	265(100.0)	$x^2=13.062$ $p=.011$
여자	0(0.0)	9(3.6)	68(27.3)	83(33.3)	89(35.7)	249(100.0)	
전체	9(1.8)	26(5.1)	122(23.7)	173(33.7)	184(35.8)	514(100.0)	

그렇다면 어머니와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정도는 어떠할까? 이와 관련하여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1.0%가 ‘매우 자주’에, 6.6%가 ‘자주’, 29.3%가 ‘때때로’라고 하였으며, 33.2%가 ‘거의 없음’, 29.9%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의 없음’과 ‘전혀 없음’을 합한 정도가 63.1%이기에, 나머지 36.9%정도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우 자주’와 ‘자주’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여학생(6.0%)에 비하여 남학생(9.1%)의 비율이 높아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가정에서 어머니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단위: 명, (%))

성별	매우 자주	자주	때때로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통계치
남자	4(1.5)	20(7.6)	64(24.2)	90(34.1)	86(32.6)	264(100.0)	$\chi^2=8542$ $p=.074$
여자	1(0.4)	14(5.6)	86(34.7)	80(32.3)	67(27.0)	248(100.0)	
전체	5(1.0)	34(6.6)	150(29.3)	170(33.2)	153(29.9)	512(100.0)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NIE는 단순히 신문 기사나 내용을 오려서 사용하는 경우부터 직접 기사를 작성해 보는 등의 매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에는 73.1%,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에는 21.9%,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에는 24.4%,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에는 16.6%,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에 15.5%,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에 29.0%, ‘기타’에 8.5%가 응답하였다. 기본적으로 비율에서 성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이 많이 경험한 순서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표 15〉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성별	오려 붙이기	찾고 짝 맞추기	이해 하기	기사비 교평가 하기	논술문 만들기	기사 쓰기	기타	전체
남자	89(67.4)	22(16.7)	33(25.0)	21(15.9)	19(14.4)	36(27.3)	9(6.8)	132(100.0)
여자	118(78.2)	40(26.5)	36(23.8)	26(17.2)	25(16.6)	46(30.5)	15(9.9)	151(100.0)
전체	207(73.1)	62(21.9)	69(24.4)	47(16.6)	44(15.5)	82(29.0)	24(8.5)	283(100.0)

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비율이나 활동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활동을 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3) 학교에서의 NIE 학습 유형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신문을 활용한 수업은 많이 권장된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신문을 활용한 NIE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수업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중 53.8%가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반 이상이 학교에서 NIE를 경험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54.4%, 여학생의 경우 53.1%가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6〉 학교에서 NIE 수업 참여유무

(단위: 명, (%))

성별	수업 받은 적 있다	수업 받은 적 없다	전체	통계치
남자	149(54.4)	125(45.6)	274(100.0)	$\chi^2=0.80$ $p=.794$
여자	135(53.1)	119(46.9)	254(100.0)	
전체	284(53.8)	244(46.2)	528(100.0)	

학교에서 NIE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 빈도를 물어 보았다.

학교에서 NIE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응답자의 48.0%가 ‘한 학기에 1~2번’, 26.0%가 ‘1년에 1번 정도’, 15.3%가 ‘1달에 1~2번’, 10.7%가 ‘1주일에 1~2번 정도’라고 응답하여서, 학교에서 NIE는 그렇게 자주 하는 수업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성별로도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표 17> 학교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하는 수업의 정도

(단위: 명, (%))

성별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한 학기에 1~2번	1년에 1번 정도	전체	통계치
남자	16(11.0)	21(14.4)	66(44.2)	43(29.5)	146(100.0)	$\chi^2=2.111$ $p=.550$
여자	14(10.4)	22(16.3)	69(51.1)	30(22.2)	135(100.0)	
전체	30(10.7)	43(15.3)	135(48.0)	115(26.0)	281(100.0)	

학교에서 NIE를 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과목을 질문하여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응답자의 37.4%가 ‘예체능’, 33.6%가 ‘사회’, 27.9%가 ‘국어’, 0.8%가 ‘수학’, 0.4%가 ‘영어’라고 응답하여서, 개별 교과로는 사회와 국어 교과에서 주로 NIE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성별로도 큰 차이는 없는 편이며, 다만 국어의 경우 남학생이, 사회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이어서 순서에 차이를 보인다.

<표 18> 학교에서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과목

(단위: 명, (%))

성별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예체능	전체	통계치
남자	42(30.4)	41(29.7)	1(0.7)	1(0.7)	53(38.4)	138(100.0)	$\chi^2=2.948$ $p=.708$
여자	31(25.0)	47(37.9)	1(0.8)	0(0.0)	45(36.3)	124(100.0)	
전체	73(27.9)	88(33.6)	2(0.8)	1(0.4)	98(37.4)	262(100.0)	

초등학교에서 주로 하는 NIE 활동 유형은 다음의 <표 19>와 같다. 복수응답이어서 응답비율을 다 합하면 100%가 넘는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에는 74.3%,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에는 23.6%,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에는 21.4%,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에는 13.2%,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에 9.3%,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에 23.9%, '기타'에 23.9%가 응답하였다.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은 앞서 가정에서 활동유형을 살펴본 결과(<표 15> 참조)와 비교할 때 큰 차이 없이 유사하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과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19>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성별	오려 붙이기	찾고 짝 맞추기	이해 하기	기사 비교평가 하기	논술문 만들기	기사 쓰기	기타	전체
남자	103(70.5)	30(20.5)	34(23.3)	15(10.3)	16(11.0)	27(18.5)	27(18.5)	146(100.0)
여자	105(78.4)	36(26.9)	26(19.4)	22(16.4)	10(7.5)	40(29.9)	40(29.9)	134(100.0)
전체	208(74.3)	66(23.6)	60(21.4)	37(13.2)	26(9.3)	67(23.9)	67(23.9)	280(100.0)

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과목은 주로 사회와 국어 교과이며, 실제 학교에서 NIE를 하는 정도는 1년에 한두 번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이 가정에서 하는 NIE와 비교하여 활동 유형의 빈도는 유사하지만, 활동 정도는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4) 사교육에서의 NIE 학습 유형

초등학생이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 과정에서 신문을 활용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 20>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중 15.3%가 사교육을 통해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성별로

는 남학생의 경우 12.6%, 여학생의 경우 18.1%가 학원 등의 사교육에서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여학생의 경우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20〉 사교육에서 NIE 수업 참여유무

(단위: 명, (%))

성별	수업 받은 적 있다	수업 받은 적 없다	전체	통계치
남자	34(12.6)	235(87.4)	269(100.0)	$\chi^2=3.018$ $p=.090$
여자	46(18.1)	208(81.9)	254(100.0)	
전체	80(15.3)	443(84.7)	523(100.0)	

학원 등의 사교육에서 NIE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 빈도를 물어 보았다. 사교육에서 NIE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응답자의 34.6%가 ‘1주일에 1~2번’, 23.1%가 ‘한 학기에 1~2번’, 21.8%가 ‘1년에 1번 정도’, 20.5%가 ‘1달에 1~2번’ 이라고 응답하여서, 사교육에서 NIE를 하는 비율은 적지만, 하는 경우에 그 빈도는 가정이나 학교에 비하여 매우 자주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1〉 사교육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하는 수업의 정도

(단위: 명, (%))

성별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한 학기에 1~2번	1년에 1번 정도	전체	통계치
남자	9(26.5)	8(23.5)	9(26.5)	8(23.5)	34(100.0)	$\chi^2=1806$ $p=.614$
여자	18(40.9)	8(18.2)	9(20.5)	9(20.5)	44(100.0)	
전체	27(34.6)	16(20.5)	18(23.1)	17(21.8)	78(100.0)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에서 주로 하는 NIE 활동 유형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복수응답이어서 응답비율을 다 합하면 100%가 넘는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에는 48.1%,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에는 68.8%,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에는 37.7%,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에는 20.8%,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에 26.0%,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에 26.0%, '기타'에 14.3%가 응답하였다.

사교육에서의 NIE 활동 유형은 앞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활동유형에 비해 여러 활동의 비율이 유사하게 높아서 다양한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2〉 사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성별	오려 붙이기	찾고 짝 맞추기	이해 하기	기사 비교평가하기	논술문 만들기	기사 쓰기	기타	전체
남자	13(39.4)	11(33.3)	14(42.4)	8(24.2)	8(24.2)	7(21.2)	4(12.1)	34(100.0)
여자	24(54.5)	13(29.5)	15(34.1)	8(18.2)	12(27.3)	13(29.5)	7(15.9)	44(100.0)
전체	37(48.1)	53(68.8)	29(37.7)	16(20.8)	20(26.0)	20(26.0)	11(14.3)	78(100.0)

2. 초등학생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관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초등학생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초등학생의 NIE 실태를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1)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상태

응답대상인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먼저 살펴보았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능력이 낮은 것이며, 높을수록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앙값은 3점이다. 응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응답자의 성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남자			여자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267	3.38	.75	256	3.37	.73	524	3.38	.74
	목표 설정	269	3.00	.90	255	3.16	.91	525	3.08	.91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71	3.16	.59	257	3.28	.64	529	3.21	.62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72	3.30	.83	256	3.61	.82	529	3.44	.84
	학습전략선택	270	3.39	.58	256	3.50	.63	529	3.11	.81
	학습실행의 지속성	269	3.16	.78	254	3.19	.85	523	3.21	.62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261	3.18	.60	246	3.35	.65	527	3.44	.61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266	3.23	.54	252	3.34	.61	524	3.17	.81
	자기 주도적 학습	239	3.23	.54	232	3.32	.58	472	3.27	.56

기본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총점은 3.23, 여학생의 경우는 3.32로 모두 중앙값인 3.0보다 높아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몇 가지 세부 영역에서의 점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자기 관리 영역(남: 3.30, 여: 3.61)’과 ‘목표 설정(남: 3.00, 여: 3.16)’,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남: 3.18, 여: 3.35)’ 등 세부 영역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로 보면 남녀 모두 ‘학습욕구의 진단’, ‘기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 ‘학습전략의 선택’에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목표 설정’이나 ‘학습실행의 지속성’에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NIE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1) 신문 읽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

응답자들의 신문 읽기 정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문읽기 정도를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점수를 보면, 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편’인 초등학생들은 3.05, ‘가끔 읽는 편’인 초등학생들은 3.38, ‘매일 읽는 편’인 초등학생들은 3.56으로 나타나서 신문을 날마다 읽는 빈도가 높은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하위요소별로 보면 매일 신문을 읽는 정도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이며, 다른 모든 하위요소에서는 매일 신문을 읽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표 24〉 신문 열독 정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거의 읽지 않는편			가끔 읽는편			매일 읽는편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203	3.13	.73	236	3.48	.69	79	3.75	.79	F=25.6, p=.000
	목표 설정	201	2.77	.88	238	3.22	.86	80	3.46	.90	F=22.5,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01	3.01	.62	242	3.31	.60	80	3.40	.54	F=18.2, p=.00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03	3.18	.81	241	3.56	.82	79	3.81	.73	F=21.3, p=.000
	학습전략선택	201	2.84	.82	241	3.25	.73	80	3.44	.79	F=22.9, p=.000
	학습실행의 지속성	199	3.01	.61	237	3.33	.55	80	3.41	.65	F=20.9, p=.00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200	3.37	.58	240	3.50	.63	80	3.46	.63	F= 2.6, p=.073
	자기성찰	202	2.95	.79	239	3.25	.79	76	3.57	.76	F=18.6, p=.000
자기 주도적 학습		179	3.05	.55	215	3.38	.53	72	3.56	.48	F=29.6, p=.000

초등학생들이 신문을 읽어 온 기간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문을 읽어 온 기간을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나누고, ‘읽지 않는 편’이라고 한 집단과 같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점수를 보면, 신문을 ‘읽지 않음’인 초등학생들은 3.06, ‘3년 미만’인 초등학생들은 3.31, ‘3년 이상’인 초등학생들은 3.42로 나타나서 신문을 읽는 기간이 긴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특히 ‘3년 미만’인 집단과 ‘3년 이상’인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에 비하여 ‘읽지 않음’과 ‘3년 미만’인 집단의 평균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또한 주도적 학습의 하위요소별로 보면 신문을 읽어 온 기간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모든 하위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25〉 신문 열독 기간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읽지 않음			3년 미만			3년 이상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173	3.15	.72	130	3.37	.77	226	3.55	.70	F=15.0, p=.000
	목표 설정	167	2.82	.89	132	3.08	.98	226	3.26	.85	F=11.3,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167	3.07	.60	131	3.11	.65	231	3.38	.58	F=14.9, p=.00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170	3.21	.79	131	3.46	.87	228	3.61	.82	F=11.7, p=.000
	학습전략선택	171	2.87	.80	134	3.16	.85	224	3.27	.75	F=12.5, p=.000
	학습실행의 지속성	168	3.00	.64	130	3.24	.55	225	3.35	.59	F=15.9, p=.00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169	3.34	.59	133	3.43	.68	225	3.53	.58	F= 4.6, p=.010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170	2.95	.71	130	3.19	.90	224	3.34	.79	F=11.1, p=.000
	자기 주도적 학습	153	3.06	.53	115	3.31	.61	204	3.42	.51	F=18.5, p=.000

초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이 신문을 활용하여 신문활용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문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주로 활용하는 신문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391	3.42	.70	101	3.37	.83	t=.691, p=.490
	목표 설정	390	3.15	.89	102	2.92	.93	t=2.30, p=.021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395	3.23	.60	102	3.28	.69	t=-.85, p=.395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395	3.48	.83	102	3.46	.83	t=.111, p=.911
	학습전략선택	396	3.14	.78	100	3.08	.86	t=.593, p=.553
	학습실행의 지속성	393	3.23	.60	100	3.17	.69	t=.860, p=.39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393	3.48	.59	101	3.36	.71	t=1.77, p=.076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389	3.18	.81	102	3.17	.81	t=.195, p=.846
	자기 주도적 학습	354	3.30	.55	91	3.24	.62	t=.918, p=.359

‘종이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전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은 3.30이고, ‘인터넷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전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은 3.24로 종이 신문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하위요소 별로 보면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에서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이신문’을 이용하는 응답자에 비하여 평균값이 조금 더 높을 뿐 다른 하위요소에서는 모두 ‘종이신문’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평균값이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목표 설정’ 요소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다른 하위요소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이 차이가 갖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다.

초등학생들의 신문 읽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관계를 보면, 신문을 매일 자주 읽는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신문을 읽은 기간이 긴 학생이 그렇지 않는 집단 보다 전반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다. 더불어 이런 경향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다양한 하위요소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2) NIE 유무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NIE를 하는지 유무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7>과 같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점수를 보면, 가정에서 NIE를 ‘한 적 있음’이라는 초등학생들은 3.47, ‘하지 않음’이라는 초등학생들은 3.04로 나타나서, 가정에서 NIE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하위요소별로 보면 가정에서 NIE를 경험한 집단은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모든 하위요소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여준다.

<표 27> 가정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285	3.60	.67	236	3.11	.74	t=7.90, p=.000
	목표 설정	285	3.33	.83	237	2.77	.91	t=7.33,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89	3.38	.57	237	3.02	.62	t=6.99, p=.00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88	3.70	.76	238	3.15	.84	t=7.81, p=.000
	학습전략선택	287	3.35	.74	239	2.83	.81	t=7.59, p=.000
	학습실행의 지속성	283	3.34	.59	237	3.06	.61	t=5.34, p=.000
학습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평가 자기성찰	283	3.52	.62	241	3.36	.58	t=3.15, p=.002
	자기 주도적 학습	282	3.41	.78	239	2.90	.76	t=7.47, p=.000
	자기 주도적 학습	256	3.47	.51	213	3.04	.53	t=8.90, p=.000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NIE를 하는지 유무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8>, <표 29>와 같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점수를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NIE를 ‘한 적 있음’이라는 초등학생들은 3.46, ‘하지 않음’이라는 초등학생들은 3.21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NIE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하위요소별로 보면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요소만 제외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와 NIE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은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평균값을 보여준다.

〈표 28〉 아버지와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155	3.61	.64	347	3.29	.76	t=4.51, p=.000
	목표 설정	152	3.36	.79	350	2.98	.94	t=4.32,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155	3.39	.54	351	3.15	.63	t=3.93, p=.00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157	3.64	.79	348	3.39	.83	t=3.16, p=.002
	학습전략선택	152	3.37	.72	353	3.02	.82	t=4.53, p=.000
학습 평가	학습실행의 지속성	151	3.33	.52	348	3.17	.65	t=2.63, p=.009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148	3.45	.58	355	3.45	.62	t=0.04, p=.966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146	3.40	.78	354	3.10	.80	t=3.89, p=.000
		133	3.46	.48	317	3.21	.58	t=4.30, p=.000

〈표 29〉 어머니와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186	3.66	.67	313	3.22	.73	t=6.49, p=.000
	목표 설정	185	3.38	.83	314	2.91	.91	t=5.69,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186	3.42	.56	317	3.10	.62	t=5.79, p=.00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187	3.70	.82	316	3.31	.82	t=5.18, p=.000
	학습전략선택	183	3.41	.74	320	2.95	.79	t=6.38, p=.000
	학습실행의 지속성	182	3.35	.57	315	3.13	.63	t=3.89, p=.00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182	3.47	.59	319	3.42	.62	t=0.89, p=.373
	자기성찰	180	3.48	.80	319	3.02	.76	t=6.18, p=.000
자기 주도적 학습		164	3.50	.51	284	3.16	.55	t=6.47, p=.000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머니와 NIE를 하는지 유무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에서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점수를 보면, ‘한 적 있음’이라는 초등학생들은 3.50, ‘하지 않음’이라는 초등학생들은 3.16으로 나타나서, 가정에서 어머니와 NIE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아버지와 NIE 경험 유무에 따른 하위요소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어머니와 NIE를 경험한 집단은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모든 하위요소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NIE 경험 유무에 따라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NIE도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30>과 같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점수를 보면, 학교에서 NIE를 ‘한 적 있음’이라는 초등학생들은 3.31, ‘하지 않음’이라는 초등학생들은 3.23로 나타나서, 학교에서 NIE를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하위요소별로 보면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 하위요소에서는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평균값을 보여준다.

<표 30> 학교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집단	276	3.43	.72	240	3.32	.78	t=1.65, p=.099
	목표 설정	276	3.11	.91	241	3.04	.92	t=0.86, p=.385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79	3.24	.61	241	3.18	.64	t=1.10, p=.518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80	3.53	.80	239	3.36	.87	t=2.32, p=.020
	학습전략선택	281	3.15	.82	238	3.06	.81	t=1.25, p=.210
	학습실행의 지속성	278	3.23	.60	235	3.17	.63	t=1.09, p=.273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277	3.47	.59	240	3.42	.63	t=0.81, p=.417
	자기성찰	275	3.19	.81	239	3.16	.82	t=0.49, p=.619
자기 주도적 학습		249	3.31	.55	215	3.23	.59	t=1.44, p=.150

초등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 유무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NIE를 한 적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에서 각각 NIE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서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학교에서 NIE 경험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가정에서의 NIE 경험에서는 발견이 된다. 이 점에서 보면 초등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NIE보다는 가정에서의 NIE가 더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파악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있어서 학교에 비해 가정의 NIE의 연관성이 더 큰 이유는 아마도 가정에서 1:1의 구체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면서 흥미를 높이는 NIE의 활용이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3) NIE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NIE 유무와 달리, NIE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행하는 NIE 유형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 붙이는 활동’만 한 경우는 ‘오려 붙이는 활동’으로,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과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까지 혹은 이 활동들만을 한 경우에는 ‘읽고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까지 혹은 이 활동만을 한 경우에는 ‘평가, 논술, 쓰기 활동’이라고 하였다. 연구진이 NIE 유형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나름 뒤의 활동들이 좀 더 사고력과 활동의 깊이를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러한 집단 분류에 기초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을 한정하여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1>, <표 32>와 같다.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36,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39,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은 3.58로 나타나서 좀 더 사고력과 깊이를 요하는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점수가 더 높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 세 집단 중에서 큰 차이는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과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 간에서 크게 나타나며,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과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간

의 차이도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런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별로 보면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점수는 다른 두 활동 집단의 점수보다 일관성 있게 높지만,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과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점수는 하위 요소에 따라 일관성 없이 차이를 보인다. 하위요소 중에서 세 집단간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습욕구집단’, ‘자기 성찰’ 두 가지 하위요소이다.

〈표 31〉 가정에서의 NIE 활동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오려붙이는 활동			읽고이해하는 활동			평가,논술,쓰기 활동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집단	86	3.45	.67	49	3.44	.62	131	3.76	.67	F=7.22, p=.001
	목표 설정	85	3.27	.82	49	3.24	.67	132	3.41	.89	F=1.11, p=.33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86	3.32	.00	50	3.28	.52	133	3.47	.58	F=3.09, p=.047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85	3.57	.73	49	3.66	.76	134	3.79	.76	F=2.32, p=.100
	학습전략선택	87	3.24	.73	48	3.30	.62	132	3.46	.76	F=2.57, p=.078
	학습실행의 지속성	88	3.34	.56	47	3.25	.46	130	3.34	.63	F=0.43, p=.646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86	3.48	.59	48	3.40	.61	130	3.59	.60	F=2.09, p=.126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86	3.25	.75	47	3.26	.69	129	3.60	.79	F=6.74, p=.001
		77	3.36	.51	43	3.39	.41	121	3.58	.52	F=5.65, p=.004

〈표 32〉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오려붙이는 활동			읽고이해하는 활동			평가,논술,쓰기 활동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집단	105	3.39	.71	56	3.44	.71	99	3.51	.68	F=0.75, p=.473
	목표 설정	107	3.04	.88	55	3.21	.83	97	3.20	.93	F=1.00, p=.368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108	3.24	.61	56	3.17	.48	98	3.34	.62	F=1.64, p=.195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108	3.46	.74	55	3.61	.74	100	3.63	.79	F=1.39, p=.249
	학습전략선택	108	3.09	.79	55	3.20	.71	99	3.29	.81	F=1.60, p=.203
	학습실행의 지속성	108	3.18	.58	53	3.30	.55	98	3.26	.62	F=0.86, p=.423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108	3.52	.62	56	3.45	.52	97	3.42	.62	F=0.73, p=.481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107	3.16	.53	53	3.23	.66	97	3.31	.77	F=1.01, p=.366
		98	3.28	.52	47	3.34	.51	91	3.37	.55	F=0.55, p=.574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28,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34,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은 3.37로 나타나서, 학교에서 좀 더 사고력과 깊이를 요하는 NIE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점수가 조금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점수 차이도 매우 적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하위요소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구체적인 NIE 활동 유형과 달리 학생들이 NIE를 하는 목적 유형에 따라 서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와 ‘외국어나 한문 등을 익히기 위해서’를 묶어서 ‘교과 학습’, ‘사회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사회현상 이해’로, ‘논술이나 글짓 등을 잘하기 위해서’와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를 묶어서 ‘논술, 사고력’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한정하여 NIE 활동 목적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3>과 같다. ‘교과학습’ 집단의 평균은 3.22, ‘사회현상 이해’ 집단의 평균은 3.21, ‘논술, 사고력’ 집단의 평균은 3.37로 나타나서 ‘논술, 사고력’을 고려하면서 NIE를 하는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에서도 ‘교과학습’과 ‘사회현상 이해’ 집단의 경우 점수 차이가 일관성이 없는 반면, ‘논술, 사고력’ 집단의 경우는 다른 두 집단보다 모든 하위요소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 중에서도 ‘목표 설정’과 ‘학습전략 선택’, ‘기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이 세 가지 영역에서는 그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난다.

<표 33> NIE 활동 목적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교과학습			사회현상이해			논술, 사고력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59	3.29	.70	136	3.30	.73	160	3.50	.73	F=3.47, p=.032
	목표 설정	61	2.29	.91	136	2.97	.91	161	3.28	.92	F=5.00, p=.007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60	3.16	.58	137	3.19	.61	162	3.29	.60	F=1.54, p=.215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61	3.45	.80	135	3.36	.84	162	3.63	.83	F=4.15, p=.016
	학습전략선택	61	3.08	.87	135	3.00	.79	160	3.28	.76	F=4.83, p=.008
	학습실행의 지속성	59	3.22	.76	136	3.16	.67	161	3.26	.55	F=1.04, p=.352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61	3.36	.70	138	3.48	.64	159	3.46	.59	F=0.79, p=.451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60	3.08	.83	137	3.10	.75	157	3.25	.85	F=1.59, p=.205
	자기 주도적 학습	57	3.22	.60	126	3.21	.59	142	3.37	.55	F=3.07, p=.048

NIE를 행하는 응답자에 한정하여 NIE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정이나 학교 모두에서의 활동 유형 중에서 ‘평가, 논술, 쓰기 활동’을 하는 집단이 ‘오려붙이는 활동’이나 ‘읽고 이해하는 활동’에 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점수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NIE 활동 유형이었다. 그리고 NIE 목적에 따른 유형에서는 ‘논술, 사고력’ 유형이 ‘교과학습’이나 ‘사회현상 이해’ 집단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점수뿐만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나 가정이나 상관없이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평가, 논술, 기사문 쓰기 등의 활동을 하는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에서 가정과 학교의 NIE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보다는 가정에서의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연관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3. 초등학생의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관계⁴⁾

부가적으로 초등학생의 NIE와 초등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 초등학생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초등학생의 NIE 실태를 고려하여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1) 주관적 학업성취도 실태

응답대상인 초등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먼저 살펴보았다.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적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며,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적을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값은 3점이다. 응답자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기본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3.53, 여학생의 경우는 3.49로

4) 초등학생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 변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는 앞서 제시된 NIE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모두 중앙값인 3.0보다 높아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응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거의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기대치가 높아서 낮게 평가한 것인지, 실제로 자신의 학업 성취가 낮은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별 교과별 주관적 학업성취도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국어’ 교과의 경우 남자는 3.48, 여자는 3.65이고, ‘영어’ 교과의 경우 남자는 3.58, 여자는 3.79로 나타나서 언어 영역에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 반대로 ‘사회’ 교과의 경우 남자는 3.36, 여자는 3.23, ‘수학’ 교과의 경우 남자는 3.58, 여자는 3.37, ‘과학’ 교과의 경우 남자는 3.64, 여자는 3.41로 나타나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 이러한 결과에는 남녀별로 교과에 대한 선호나 실제 학업 결과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4〉 응답자의 성별 주관적 학업성취

교과목별	남자			여자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국어	276	3.48	.91	257	3.65	.84	534	3.56	.88
사회	276	3.36	1.03	257	3.23	1.02	534	3.29	1.03
수학	276	3.58	1.00	259	3.37	1.07	536	3.47	1.04
과학	272	3.64	.99	259	3.41	.91	536	3.53	.96
영어	276	3.58	1.16	259	3.79	1.10	536	3.68	1.14
전체	239	3.53	.76	232	3.49	.80	534	3.51	.78

2) NIE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

(1) 신문 읽기와 주관적 학업성취도

응답자들의 신문읽기 정도와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신문을 읽는 정도 및 신문을 읽어 온 기간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값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5> 및 <표 36>과 같다.

<표 35> 신문 열독 정도와 주관적 학업성취

교과목별	거의 읽지 않는편			가끔 읽는편			매일 읽는편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201	3.33	.92	245	3.65	.81	81	3.86	.89	F=13.5, p=.000
사회	201	2.98	1.04	245	3.39	.92	81	3.83	1.05	F=23.2, p=.000
수학	203	3.26	1.05	245	3.56	1.02	81	3.83	.94	F=10.2, p=.000
과학	203	3.31	.96	245	3.58	.93	81	3.91	.93	F=12.4, p=.000
영어	203	3.32	1.20	245	3.83	1.06	81	4.17	.94	F=21.2, p=.000
전체	201	3.24	.79	245	3.60	.71	81	3.92	.71	F=26.9, p=.000

<표 36> 신문 열독 기간과 주관적 학업성취

교과목별	읽지않음			3년 미만			3년 이상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170	3.30	.92	134	3.57	.86	230	3.75	.83	F=12.9, p=.000
사회	170	2.88	1.03	134	3.38	.97	230	3.55	.96	F=22.6, p=.000
수학	170	3.28	1.08	135	3.47	.96	231	3.62	1.03	F=5.37, p=.000
과학	170	3.29	.95	135	3.44	.95	231	3.74	.81	F=11.7, p=.000
영어	170	3.38	1.18	135	3.79	1.06	231	3.84	.82	F=8.74, p=.000
전체	170	3.22	.81	134	3.53	.70	230	3.70	.74	F=19.1, p=.000

우선 신문을 매일 읽는 정도와 관련된 주관적 학업성취도 전체 점수를 보면, 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편’인 초등학생들은 3.24, ‘가끔 읽는 편’인 초등학생들은 3.60, ‘매일 읽는 편’인 초등학생들은 3.92으로 나타나서 신문을 날마다 읽는 빈도가 높은 집단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다. 교과별로 보면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교과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특히 교과 중에서 매일 신문을 읽는 정도에 따라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교과는 ‘사회(매일 읽는 편: 3.83, 가끔 읽는 편: 3.39, 거의 읽지 않는 편: 2.98)’ 교과이다.

또한 응답자들이 신문을 읽어온 기간과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우선 주관적 학업성취도 전체 점수를 보면, 신문을 ‘읽지않음’인 초등학생들은 3.22, ‘3년 미만’인 초등학생들은 3.53, ‘3년 이상’인 초등학생들은

3.70으로 나타나서 신문을 날마다 읽는 집단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다. 교과별로 보면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교과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특히 교과 중에서 매일 신문을 읽는 정도에 따라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교과는 ‘사회(3년 이상: 3.55, 3년 미만: 3.38, 읽지않음: 2.88)’ 교과이다.

앞서의 신문 열독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문을 오랜 기간 매일 꾸준히 읽은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다른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다. 특히 이런 결과에서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사회’ 교과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것은 다른 교과와 달리 ‘사회’ 교과의 NIE와 관련성이 높은 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2)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유무와 주관적 학업성취

초등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지와 주관적 학업성취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37>, <표 38>과 같다.

<표 37> 가정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성취

교과목별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국어	290	3.73	.82	241	3.37	.92	t=4.77, p=.000
사회	290	3.50	.97	241	3.05	1.05	t=5.16, p=.000
수학	291	3.60	.98	242	3.33	1.03	t=3.05, p=.000
과학	291	3.67	.88	242	3.36	1.03	t=3.65, p=.000
영어	291	3.83	1.09	242	3.49	1.17	t=3.46, p=.000
전체	290	3.66	.72	241	3.32	.81	t=5.18, p=.000

<표 38> 학교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성취

교과목별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국어	282	3.70	.86	242	3.41	.88	t=3.72, p=.000
사회	282	3.43	.98	242	3.17	1.06	t=2.80, p=.005
수학	284	3.48	1.03	242	3.49	1.055	t=-.05, p=.955
과학	284	3.61	.93	242	3.45	.98	t=1.93, p=.053
영어	284	3.70	1.14	242	3.65	1.14	t=0.51, p=.608
전체	281	3.58	.75	242	3.43	.81	t=2.22, p=.027

우선 가정의 NIE와 전체 주관적 학업 성취의 관련성을 보면, 가정에서 NIE를 ‘한 적 있음’ 집단의 평균은 3.66, ‘하지 않음’ 집단의 평균은 3.32로 나타나서 가정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주관적 학업 성취가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교과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든 과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학교에서 NIE 경험 유무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NIE를 ‘한 적 있음’ 집단의 경우는 평균이 3.58, ‘하지 않음’ 집단의 경우는 3.43으로 학교에서 NIE 경험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이 차이는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교과별로 보면 학교에서 NIE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경향은 모든 교과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국어’와 ‘사회’ 교과이다. 즉 가정에서 NIE 경험과 학생들 스스로 교과에 대하여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주관적으로 고려한 정도에서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 정적인 관련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

초등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NIE 활동을 하는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에 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NIE를 하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9>, <표 40>과 같다.

<표 39> 가정에서의 NIE 유형과 주관적 학업 성취

교과목별	오려붙이는 활동			읽고이해하는 활동			평가,논술,쓰기 활동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88	3.70	.81	50	3.50	.90	132	3.85	.76	F=3.44 p=.033
사회	88	3.38	1.04	50	3.32	.89	132	3.70	.86	F=4.81, p=.009
수학	88	3.50	1.01	50	3.38	.87	133	3.74	.95	F=3.29, p=.039
과학	88	3.51	.91	50	3.44	.90	133	3.84	.79	F=5.99 p=.003
영어	88	3.67	1.13	50	3.56	1.16	133	4.03	1.02	F=4.75, p=.009
전체	88	3.55	.78	50	3.44	.69	132	3.83	.64	F=7.70, p=.001

우선 가정에서 NIE를 하는 응답자 중에서 NIE 활동 유형과 전체 주관적 학업 성취의 관련성을 보면, 가정에서 NIE를 할 때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55,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44,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은 3.83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NIE 활동 유형 중 ‘평가, 논술, 쓰기 활동’을 하는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주관적 학업성취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교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하다. 다만 ‘오려 붙이기 활동’이 ‘읽고 이해한 활동’을 하는 집단에 비하여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이유는 현재의 자료만으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표 40〉 학교에서의 NIE 유형과 주관적 학업성취

교과목별	오려붙이는 활동			읽고이해하는 활동			평가,논술,쓰기 활동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109	3.62	.88	55	3.75	.84	99	3.82	.82	F=1.40, p=.247
사회	109	3.36	1.06	55	3.31	.83	99	3.57	.93	F=1.67, p=.189
수학	109	3.24	1.07	56	3.75	.89	100	3.64	1.01	F=6.28, p=.002
과학	109	3.50	1.01	56	3.66	.94	100	3.67	.82	F=1.08, p=.340
영어	109	3.51	1.20	56	3.66	1.06	100	3.96	1.08	F=4.13, p=.017
전체	109	3.44	.81	55	3.63	.66	99	3.73	.68	F=4.12, p=.017

학교에서 NIE를 하는 응답자 중에서 NIE 활동 유형과 전체 주관적 학업 성취의 관련성을 보면, 학교에서 NIE를 할 때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44,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63,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은 3.7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이러한 경향은 ‘사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에서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수학’과 ‘영어’ 교과에서만 나타난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NIE 활동 유형 중 ‘평가, 논술, 쓰기 활동’을 하는 집단의 평균은 모든 교과에서 가장 높은 주관적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4. 논의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의 NIE 경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기 주도적 학습, 주관적 학업 성취 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발견과 이와 관련된 교육적 함의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발견

첫째, 초등학생 응답자의 NIE 학습 유형을 보면 신문을 집에서 받아보는 경우가 10명 중 4명 정도이며, 신문을 매일 읽는 경우가 전체 7명 중 1명꼴이고, 신문을 읽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2명 중 1명꼴이었다. 신문에서 주로 읽는 면은 10명 중 7명꼴로 연예, 스포츠 면이라고 하며, 100명에 한명 꼴로 사설을 읽는 정도였다.

둘째, 초등학생 응답자 중 10명 중 4명 정도가 NIE를 들어 보았다고 하며, 신문활용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3명 중 1명꼴로 사회생활의 이해를 위해서, 5명 중 1명꼴로 논술과 글짓기에 도움이 되어서, 6명 중 1명꼴로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서, 10명에 1명꼴로 교과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하였다. NIE를 이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신문은 10명 중 8명이 종이신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가정에서의 NIE를 하는 정도는 10명 중 1명꼴로 자주 하며, 하지 않는 경우가 10명 중 4명을 조금 넘었다. 아버지 보다는 주로 어머니와 NIE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정에서 NIE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신문을 주로 오려 붙이는 활동으로 10명 중 7명꼴로 하며, 가장 적게 하는 활동은 논술문 만들기로 7명 중 1명꼴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에서의 NIE를 수업 시간에 받아본 적이 있는 학생은 10명 중 5명 정도인데, 대체로 한 학기에 1~2번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과목은 3명 중 1명꼴로 응답한 사회 교과이다.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활동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려붙이기 활동이 많았고, 논술문 만들기가 적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교육에서의 NIE 수업을 받은 초등학생 응답자는 7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다. 사교육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수업을 한 정도는 3명 중 1명꼴로 1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NIE 빈도에 비하여 빈도가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의 NIE에서 주로 한 활동은 매우 다양한 활동에서 대체로 20~40%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정이나 사교육에서 특화된 NIE 활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신문읽기 정도에서 거의 읽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매일 읽는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큰 차이(매일: 3.56, 거의: 3.05)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고, 신문을 읽어온 기간도 3년 이상인 집단이 읽지 않는다고 한 집단에 비해서도 큰 차이(3년이상: 3.42, 없음: 3.06)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가정에서의 NIE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큰 차이(유: 3.47, 무: 3.04)를 보인다. 특히 아버지와의 NIE 경험(유: 3.46, 무: 3.21)보다는 어머니와의 NIE 경험(유: 3.50, 무: 3.16)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학교에서 NIE 경험(유: 3.31, 무: 3.23)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차이가 거의 없어서 NIE의 경험은 가정에서의 경험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련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가정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차이(오려 붙이는 활동: 3.36, 읽고 이해하는 활동: 3.39, 평가, 논술, 쓰기 활동: 3.58)를 보인다. 이에 반해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그리 큰 차이(오려붙이는 활동: 3.28, 읽고 이해하는 활동: 3.34, 평가, 논술, 쓰기 활동: 3.37)를 보이지 않는다. NIE 활동 목적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약한 차이(교과학습: 3.22, 사회현상 이해, 3.21, 논술, 사고력: 3.37)가 나타나는데, 논술과 사고력을 위한 활동에서만 그 차이가 좀 분명한 편이다.

아홉째, 신문읽기 정도에서 거의 읽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매일 읽는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큰 차이(매일: 3.92, 거의: 3.24)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고, 신문을 읽어온 기간도 3년 이상인 집단이 읽지 않는다고 한 집단에 비해서도 큰 차이(3년 이상: 3.70, 없음: 3.22)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다.

열 번째, 가정에서의 NIE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큰 차이(유: 3.66, 무: 3.32)를 보인다. 또한 학교에서 NIE 경험(유: 3.58, 무: 3.43)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도 가정과 비교하여 약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가정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차이(오려 붙이는 활동: 3.55, 읽고 이해하는 활동: 3.44, 평가, 논술, 쓰기 활동: 3.83)를 보인다.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도 일정한 차이(오려붙이는 활동: 3.44, 읽고 이해하는 활동: 3.63, 평가, 논술, 쓰기 활동: 3.73)를 보인다. 이 두 결과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 모두에서 ‘평가, 논술, 쓰기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하여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2) 초등 NIE 관련 함의

앞서 발견한 몇 가지 사항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우선 NIE 여부와 상관없이 신문을 가까이 접하고 일정하게 매일 읽는 것이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주관적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변수라는 것이다. 단순히 신문을 매일 읽어서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인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아서 신문을 매일 읽는 것인지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신문을 매일 읽는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신문 읽기를 위한 홍보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별히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더불어 자녀가 신문을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더 나아가, 신문을 잘 읽는 방법 등에 대한 단순한 활동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된다. 특히 개별 신문사의 NIE 활동에서는 신문 기사 중 ‘자녀와 같이 읽기’ 코너나, 신문 기사 읽고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질문’ 코너 등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단순히 신문 읽기와 달리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NIE 경험에서는 조금 독특한 면을 고려하여 NIE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NIE 경험,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NIE 경험은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주관적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NIE 경험은 그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

가정에 비하여 학교에서의 NIE와의 연관성이 낮을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가정에서의 NIE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활동을 다양하면서도 일정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학교에서는 개별 단위 수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활동으로 인해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이나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하기에 생긴 결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학교에서의 NIE는 교사에 의해 설계된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NIE에 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발휘하거나 증진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이점에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NIE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에서의 NIE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논술, 글쓰기, 기사문 작성 등의 경우는 매우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학부모 안내서 등의 개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에서 NIE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더 특화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학교의 NIE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규적으로 지속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학교 수업을 위한 일반적인 NIE 이외,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 NIE 교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NIE 입문을 도와주는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논술, 글쓰기 등 심화된 활동까지 분화된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V. 조사결과: 중학생 분석 결과

1. 중학생의 NIE 학습 유형

1) NIE 관련 기본 사항

중학생의 신문활용교육(NIE)과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문 구독 유무, 신문 열독 정도, 신문을 읽은 기간, 신문에서 주로 읽는 면, NIE에 대한 인식 유무, NIE의 이유에 대한 인식, NIE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문의 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학생의 집에서의 신문 구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집은 일간(매일 오는) 신문을? 이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받아본다/ 받아 보지 않는다’ 라는 응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1>과 같다.

조사 대상 학생의 34.6%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35.3%)이 여학생(33.7%)보다 구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1> 집에서 일간신문 구독 유무

(단위: 명, (%))

성별	받아본다	받아보지 않는다	전체	통계치
남자	107(35.3)	196(64.7)	303(100.0)	$\chi^2 = 10$ $p = .724$
여자	89(33.7)	175(66.3)	264(100.0)	
전체	196(34.6)	371(65.4)	567(100.0)	

가정에서 신문을 받아 보느냐의 유무보다는 사실상 응답 대상자가 신문을 읽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을 읽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신문을?’ 이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매일 읽는 편/가끔 읽는 편/거의 읽지 않는 편’ 이라는 응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2>와 같다.

조사대상 학생의 50.9%가 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9.5%는 가끔 읽는 것으로, 9.6%는 매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신문 열독 정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매일 읽는 편에 속하는 학생 수의 비율(12.0%)이 여학생(6.8%)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가끔 읽는 편에 속하는 학생 수의 비율(42.4%)이 남학생(3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2> 신문 열독 정도

(단위: 명, (%))

성별	매일 읽는 편	가끔 읽는 편	거의 읽지 않는편	전체	통계치
남자	36(12.0)	111(37.0)	153(51.0)	300(100.0)	$\chi^2 = 4.985$ p=.083
여자	18(6.8)	112(42.4)	134(50.8)	264(100.0)	
전체	54(9.6)	223(39.5)	287(50.9)	564(100.0)	

한편, 학생들의 신문 읽은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읽는 정도에서 ‘거의 읽지 않는 편’ 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신문을 읽기 시작한 것은 ()년부터이다’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기입된 년도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환산한 조사결과는 <표 43>과 같다.

3-5년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년이 26.7%, 6년 이상이 17.8%를 보였다. 조사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임을 고려하면,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3,4학년 부터 신문을 읽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6년 이상의 경우에는 남학생(19.7%)이 여학생(15.7%)보다 높게 나타났고, 3-5년의 경우에는 여학생(58.7%)이 남학생(52.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3〉 신문을 읽은 기간

(단위: 명, (%))

성별	1~2년	3~5년	6년 이상	전체	통계치
남자	38(27.7)	72(52.6)	27(19.7)	137(100.0)	$\chi^2=1.12$ $p=.571$
여자	31(25.6)	71(58.7)	19(15.7)	121(100.0)	
전체	69(26.7)	143(55.4)	46(17.8)	258(100.0)	

중학생들이 주로 읽는 신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주로 신문의 ~’ 질문을 제시하고 해당 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4〉와 같다.

연예/스포츠면이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문화면이 10.5%, 정치와 경제면이 각각 6.4%, 기타가 4.9%, 사설이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은 ‘연예, 스포츠면’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제외한 ‘정치, 경제, 사설면’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에 속했다. 주로 보는 신문의 면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4〉 주로 읽는 신문의 면

(단위: 명, (%))

성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설	기타	전체	통계치
남자	6 (4.2)	11 (7.7)	11 (7.7)	103 (72.5)	4 (2.8)	7 (4.9)	142 (100.0)	$\chi^2=8.88$ $p=.110$
여자	11 (8.8)	6 (4.8)	17 (13.6)	85 (68.0)	0 (0.0)	6 (4.8)	125 (100.0)	
전체	17 (6.4)	17 (6.4)	28 (10.5)	188 (70.4)	4 (1.5)	13 (4.9)	267 (100.0)	

NIE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신문활용교육(NIE)에 대해 들어본 적이~’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없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5〉와 같다.

전체 학생의 71.9%가 NIE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28.1%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NIE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34.1%, 남학생은 22.9%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NIE를 들어본 경험

(단위: 명, (%))

성별	있다	없다	전체	통계치
남자	69(22.9)	232(77.1)	301(100.0)	$\chi^2=863$ $p=.003$
여자	90(34.1)	174(65.9)	264(100.0)	
전체	159(28.1)	406(71.9)	565(100.0)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NIE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활용해서 수업이나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6〉과 같다.

‘사회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논술이나 글짓기를 잘하기 위해서’가 22.1%,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가 19.4%,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해서’가 10.7%,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NIE의 이유로 ‘교과내용 이해, 사회현상 이해, 재미있는 학습’을 여학생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6〉 신문활용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성별	교과 내용 이해	논술 글짓기	사회 현상 이해	사고 능력 향상	외국어 한문 학습	재미 있는 학습	기타	전체	통계치
남자	26 (10.2)	48 (18.8)	89 (34.9)	43 (16.9)	4 (1.6)	31 (12.2)	14 (5.5)	255 (100.0)	$\chi^2=42.17$ $p=.058$
여자	12 (5.9)	53 (26.1)	66 (32.5)	46 (22.7)	4 (2.0)	18 (8.9)	4 (2.0)	203 (100.0)	
전체	38 (8.3)	101 (22.1)	155 (33.8)	89 (19.4)	8 (1.7)	49 (10.7)	18 (3.9)	458 (100.0)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는 신문이 많아지면서 NIE에서도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IE를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문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활용해서 수업이나 공부를 할 때, 어떤 신문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종이신문/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신문’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7>과 같다.

60.7%가 종이 신문을, 39.3%가 인터넷 신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종이신문을 활용하여 NIE를 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62.8%가 종이 신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학생의 58.5%보다 높았다. 반면 여학생의 41.5%가 인터넷 신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학생의 37.2%보다 높았다. 그러나 성별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7> NIE에서 주로 이용하는 신문

(단위: 명, (%))

성별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전체	통계치
남자	172(62.8)	102(37.2)	274(100.0)	$\chi^2=1.008$ $p=.327$
여자	148(58.5)	105(41.5)	253(100.0)	
전체	320(60.7)	207(39.3)	527(100.0)	

2) 가정에서의 NIE 학습 유형

중학생의 가정에서의 NIE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한 학습 유무, 이용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활용해서 숙제를 한 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8>과 같다.

학생들의 40.4%가 ‘때때로’ 학습 시 신문을 활용한다고 답했고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거의 없음’이 34.9%, ‘전혀 없음’이 20.5%, ‘자주’가 3.4%, ‘매우 자주’가 0.9%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없음’과 ‘전혀 없음’을 합한 55.4%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44.6% 정도는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전혀 없음’에 대해 25.4%를 나타난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14.8%, ‘때때로’의 경우 여학생은

45.5%를 나타낸 것에 비해 남학생은 36.0%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가정에서 신문을 활용한 학습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8〉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단위: 명, (%))

성별	매우 자주	자주	때때로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통계치
남자	1(0.3)	8(2.6)	109(36.0)	108(35.6)	77(25.4)	303(100.0)	$\chi^2=4.272$ $p=.006$
여자	4(1.5)	11(4.2)	120(45.5)	90(34.1)	39(14.8)	264(100.0)	
전체	5(0.9)	19(3.4)	229(40.4)	198(34.9)	116(20.5)	567(100.0)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신문을 이용하는 학습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신문을 활용하여 숙제나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9〉, 〈표 50〉 과 같다.

아버지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는 ‘전혀 없음’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의 없음’이 32.2%, ‘때때로’가 15.7%, ‘자주’가 1.3%, ‘매우 자주’가 0.7%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없음’과 ‘전혀 없음’을 합한 정도가 82.3% 이기에 나머지 17.7% 정도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9〉 가정에서 아버지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단위: 명, (%))

성별	매우 자주	자주	때때로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통계치
남자	2(0.7)	5(1.7)	38(13.2)	87(30.2)	156(54.2)	288(100.0)	$\chi^2=6.203$ $p=.184$
여자	2(0.8)	2(0.8)	47(18.6)	87(34.4)	115(45.5)	253(100.0)	
전체	4(0.7)	7(1.3)	85(15.7)	174(32.2)	271(50.1)	541(100.0)	

어머니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는 ‘전혀 없음’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의 없음’이 34.7%, ‘때때로’가 17.8%, ‘자주’가 3.3%, ‘매우 자주’가 1.3%로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없음’과 ‘전혀 없음’을 합한 정도가 77.6%이기에 나머지 22.4% 정도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0〉 가정에서 어머니와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한 정도

(단위: 명, (%))

성별	매우 자주	자주	때때로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통계치
남자	3(1.0)	9(3.1)	43(14.8)	97(33.3)	139(47.8)	291(100.0)	$\chi^2=7.27$ p=.121
여자	4(1.5)	9(3.5)	55(21.2)	94(36.3)	97(37.5)	259(100.0)	
전체	7(1.3)	18(3.3)	98(17.8)	191(34.7)	236(42.9)	550(100.0)	

중학생이 가정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즉,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해서 숙제를 했는지 해당 방법에 모두 표시해주세요’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51>과 같다.

사용한 NIE 유형에는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활동’이 26.1%,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이 25.6%,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활동’이 22.3%,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이 17.6%,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이 13.9%, ‘기타’가 7.6%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NIE 활동 유형 중에서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활동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비율에서 성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이 많이 경험한 순서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표 51〉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성별	오려 붙이기	찾고 짝 맞추기	이해 하기	기사비 교평가 하기	논술문 만들기	기사 쓰기	기타	전체
남자	85 (76.6)	25 (22.5)	27 (24.3)	16 (14.4)	15 (13.5)	18 (16.2)	7 (6.3)	111 (100.0)
여자	99 (78.0)	28 (22.0)	34 (26.8)	17 (13.4)	27 (21.3)	44 (34.6)	11 (8.7)	127 (100.0)
전체	184 (77.3)	53 (22.3)	61 (25.6)	33 (13.9)	42 (17.6)	62 (26.1)	18 (7.6)	238 (100.0)

가정에서의 NIE 학습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가정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비율이나 활동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활동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에서의 NIE 학습 유형

중학생의 학교에서의 NIE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서 신문을 이용한 수업 경험의 유무, 정도, 활용 교과, 수업 시 사용되는 신문활용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교에서 신문을 이용한 수업 경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 본 적이~’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없다’의 응답 중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학교에서 NIE 수업 참여유무

(단위: 명, (%))

성별	수업 받은 적 있다	수업 받은 적 없다	전체	통계치
남자	117(39.4)	180(60.6)	297(100.0)	$\chi^2=2723$ p=.103
여자	120(46.3)	139(53.9)	259(100.0)	
전체	237(42.6)	319(57.4)	556(100.0)	

응답자의 42.6%가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57.4%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46.3%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학생(39.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신문을 이용한 수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 중에서 신문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NIE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학교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하는 수업의 정도

(단위: 명, (%))

성별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한 학기에 1-2번	1년에 1번 정도	전체	통계치
남자	11(9.4)	10(8.5)	41(35.0)	55(47.0)	117(100.0)	$\chi^2=1.190$ $p=.755$
여자	16(13.4)	8(6.7)	39(32.8)	56(47.1)	119(100.0)	
전체	27(11.4)	18(7.6)	80(33.9)	111(47.0)	236(100.0)	

‘1년의 1번 정도’가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학기에 1-2번’이 33.9%, ‘1주일에 1-2번’이 11.4%, ‘한 달에 1-2번’이 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의 NIE 활용 수업의 빈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살펴보면, ‘1주일에 1-2번’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NIE를 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느 과목의 수업에서 신문을 주로 활용하였는지 하나만 표시해주세요’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 NIE 경험이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 학교에서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과목

(단위: 명, (%))

성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예체능	전체	통계치
남자	34 (30.6)	23 (20.7)	2 (1.8)	5 (4.5)	1 (0.9)	46 (41.4)	111 (100.0)	$\chi^2=3.99$ $p=.551$
여자	28 (24.6)	26 (22.8)	2 (1.8)	2 (1.8)	0 (0.0)	56 (49.1)	114 (100.0)	
전체	62 (27.6)	49 (21.8)	4 (1.8)	7 (3.1)	1 (0.4)	102 (45.3)	225 (100.0)	

‘예체능’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가 27.6%, ‘사회’가 21.8%, ‘과학’이 3.1%, ‘수학’이 1.8%, ‘영어’가 0.4%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교과로는 국어와 사회 교과에서 주로 NIE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반적으로 특정 몇 개 과목의 수업에 한정하여 NIE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했는지 해당 방법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55>와 같다.

사용한 NIE 유형에는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활동’이 20.6%,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활동’이 19.7%,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이 15.9%,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이 15.0%,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이 13.9% ‘기타’가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성별	오려 붙이기	찾고 짝 맞추기	이해하기	기사 비교평가하기	논술문 만들기	기사 쓰기	기타	전체
남자	80(70.2)	19(16.7)	7(6.1)	13(11.4)	16(14.0)	21(18.4)	5(4.4)	114(100.0)
여자	88(73.9)	27(22.7)	30(25.2)	17(14.3)	19(16.0)	27(22.7)	13(10.9)	119(100.0)
전체	168(72.1)	46(19.7)	37(15.9)	30(13.9)	35(15.0)	48(20.6)	18(7.7)	233(100.0)

학교에서의 NIE 학습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과목은 주로 국어와 사회 교과이며, 실제 학교에서 NIE를 하는 정도는 1년에 한두 번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하는 NIE와 비교하여 활동 유형의 빈도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 사교육에서의 NIE 학습 유형

중학생의 사교육에서의 NIE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에서 신문을 이용한 수업 경험의 유무, 정도, 수업시 사용되는 활용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사교육에서의 신문을 이용한 수업 경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활용해서 학원이나 과외에서 수업을 받아 본 적이~’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없다’의 응답 중 선택하게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56>과 같다.

응답자의 90.3%가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9.7%는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12.4%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학생(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6> 사교육에서 NIE 수업 참여유무

(단위: 명, (%))

성별	수업 받은 적 있다	수업 받은 적 없다	전체	통계치
남자	22(7.4)	274(92.6)	296(100.0)	$\chi^2=3.872$ $p=.061$
여자	32(12.4)	226(87.6)	258(100.0)	
전체	54(9.7)	500(90.3)	554(100.0)	

사교육에서의 NIE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에서 신문을 이용한 수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학원이나 과외 수업 중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사교육에서 NIE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7>과 같다.

‘1주일에 1-2번’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년에 1번 정도’가 22.2%, ‘한 학기에 1-2번’이 20.4%, ‘한 달에 1-2번’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1주일에 1-2번 정도’의 경우 남학생이 59.1%로 여학생의 37.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교육에서 NIE를 하는 비율은 가정이나 학교보다 적지만 하는 경우에는 그 빈도가 가정이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7〉 사교육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하는 수업의 정도

(단위: 명, (%))

성별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한 학기에 1-2번	1년에 1번 정도	전체	통계치
남자	13(59.1)	2(9.1)	3(13.6)	4(18.2)	22(100.0)	$\chi^2 = 25.8$ $p = .467$
여자	12(37.5)	4(12.5)	8(25.0)	8(25.0)	32(100.0)	
전체	25(46.3)	6(11.1)	11(20.4)	12(22.2)	54(100.0)	

중학생들이 사교육에서 주로 하는 NIE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했는지 해당 방법에 모두 표시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사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성별	오려 붙이기	찾고 짝 맞추기	이해 하기	기사 비교평가하기	논술문 만들기	기사 쓰기	기타	전체
남자	11(50.0)	3(13.6)	9(40.9)	3(13.6)	11(50.0)	2(9.1)	1(4.5)	22(100.0)
여자	15(48.4)	14(45.2)	16(51.6)	9(29.0)	10(32.3)	10(32.3)	1(3.2)	31(100.0)
전체	26(49.1)	17(32.1)	25(47.2)	12(22.6)	21(39.6)	12(22.6)	2(3.8)	53(100.0)

사용한 NIE 유형에는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이 47.2%,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이 39.6%,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활동’이 32.1%,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활동’과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이 22.6%, ‘기타’가 3.8%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서의 NIE 활동 유형은 앞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활동 유형에 비해 여러 활동의 비율이 유사하게 높아서 다양한 활동을 수업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중학생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계⁵⁾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중학생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우선 응답한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미 살펴본 중학생의 NIE 실태를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1) 자기 주도적 학습 상태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를 위해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상태를 확인하였다.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연구방법 부분에서 밝혔듯이 한국교육개발원(이석재 외, 2003)에서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요소를 중심으로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하위 요소는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값은 3점이다. 분석결과는 <표 59>와 같다.

전체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은 3.04이고, 남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평균 2.99, 여학생은 3.11로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앙값이 3점인 점을 고려하면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목표 설정’, ‘학습 전략 선택’, ‘학습 실행의 지속성’, ‘자기 성찰’의 경우 중앙값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에 대한 노력 기인’과 ‘학습 욕구 진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욕구진단’이 3.19,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이 3.07, ‘학습을 위한

5) 중학생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 변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는 앞서 제시된 NIE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원 파악'이 3.06, '학습실행의 지속성'이 3.01, '자기 성찰'이 2.88, '학습전략 선택'이 2.71, '목표 설정'이 2.67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이 3.34,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이 3.18, '학습욕구진단'이 3.16, '자기성찰'이 2.98, '학생실행의 지속성'이 2.95, '목표 설정'이 2.93, '학습전략 선택'이 2.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응답자의 성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남자			여자			전체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계획	학습욕구진단	294	3.19	.64	261	3.16	.68	555	3.18	.66
	목표 설정	295	2.67	.83	262	2.93	.89	557	2.79	.87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99	3.06	.67	262	3.18	.57	561	3.12	.63
학습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98	3.07	.77	263	3.34	.75	561	3.20	.77
	학습전략선택	293	2.71	.78	263	2.90	.77	556	2.80	.78
	학습실행의 지속성	293	3.01	.58	255	2.95	.67	548	2.98	.62
학습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296	3.24	.53	262	3.45	.63	558	3.34	.59
	자기성찰	293	2.88	.78	262	2.98	.78	555	2.93	.78
자기주도적 학습		264	2.99	.49	245	3.11	.55	509	3.04	.52

2) NIE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NIE의 경험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 읽기와 같은 NIE을 위한 기본적인 경험,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경험, NIE 활용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1) 신문 읽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

응답자들의 신문 읽기 정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문 읽기 정도를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60>과 같다.

<표 60>에서 보듯이, 신문을 매일 읽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점수는

3.31로 가끔 읽는 학생 집단의 3.15와 거의 읽지 않는편에 속하는 학생 집단의 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문을 매일 읽는 학생일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소들에서도 신문 열독 정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신문 열독 정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거의 읽지 않는편			가끔 읽는편			매일 읽는편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282	3.04	.64	217	3.28	.64	53	3.48	.67	F=14.3 p=.000
	목표 설정	282	2.63	.81	218	2.94	.91	53	3.10	.82	F=12.1,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84	3.00	.63	219	3.23	.59	54	3.40	.61	F=14.5 p=.00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85	3.04	.78	218	3.36	.70	54	3.43	.82	F=13.9 p=.000
	학습전략선택	285	2.60	.80	217	2.95	.70	51	3.27	.60	F=23.5 p=.000
	학습실행의 지속성	280	2.87	.60	213	3.08	.63	52	3.16	.61	F=9.3 p=.00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285	3.25	.54	217	3.43	.61	52	3.48	.62	F=7.21 p=.001
	자기성찰	282	2.80	.78	217	3.00	.76	52	3.31	.67	F=11.4 p=.000
자기주도적 학습		260	2.92	.50	198	3.15	.52	48	3.31	.47	F=19.3 p=.000

중학생들의 신문을 읽어 온 기간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문 열독 기간을 ‘1-2년’, ‘3-5년’, ‘6년이상’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1〉과 같다.

〈표 61〉 신문 열독 기간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1-2년			3-5년			6년 이상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81	3.14	.58	163	3.31	.64	60	3.48	.74	F=4.52 p=.012
	목표 설정	79	2.61	.85	164	3.00	.85	60	3.22	1.0	F=9.06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80	3.21	.62	166	3.22	.57	60	3.36	.72	F=1.30 p=.275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80	3.14	.74	166	3.37	.70	59	3.42	.80	F=3.30 p=.039
	학습전략선택	79	2.72	.70	164	3.06	.63	58	3.03	.89	F=6.34 p=.002
	학습실행의 지속성	76	2.93	.62	164	3.11	.60	58	3.16	.64	F=2.74 p=.066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80	3.30	.52	163	3.49	.61	58	3.32	.67	F= 3.31 p=.038
	자기성찰	78	2.83	.77	164	3.13	.70	59	3.12	.88	F=4.21 p=.016
자기주도적 학습		71	2.97	.47	153	3.22	.48	53	3.25	.57	F=6.72 p=.001

<표 61>에서 보듯이, '1-2년'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2.97, '3-5년'의 경우 3.22, '6년 이상'의 경우 3.25로 신문을 읽은 기간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을 6년 이상 읽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점수와 1-2년을 읽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신문을 오랜 기간 읽은 학생일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소들에서 '학습욕구진단'은 유의수준 .05에서 신문 열독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목표 설정'은 유의수준 .001에서,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은 유의수준 .05에서, '학습전략 선택'은 유의수준 .01에서,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자기 성찰' 역시 유의수준 .05에서 열독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이 신문을 활용하여 NIE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문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62>와 같다.

<표 62> 주로 활용하는 신문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315	3.20	.68	201	3.16	.63	t=.740 p=.460
	목표 설정	316	2.83	.89	203	2.79	.80	t=.509 p=.611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317	3.14	.64	205	3.17	.57	t=-.575 p=.566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319	3.19	.75	204	3.28	.76	t=-1.246 p=.213
	학습전략선택	316	2.85	.77	202	2.79	.75	t=.839 p=.402
	학습실행의 지속성	313	2.97	.64	198	2.99	.57	t=-.254 p=.80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316	3.36	.58	204	3.35	.58	t=.239 p=.811
	자기성찰	311	2.96	.78	206	2.93	.74	t=.407 p=.685
	자기주도적 학습	292	3.06	.54	182	3.06	.47	t=.117 p=.907

'종이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전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과 '인터넷 신문'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전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이 3.06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학습욕구진단', '목표 설정', '학습전략 선택', '결과에 대한 노력 기인', '자기

성찰'에서 종이 신문의 활용이 인터넷 신문의 활용보다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학습실행의 지속성'에서는 인터넷 신문의 활용이 종이 신문의 활용보다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즉, NIE에서 활용하는 신문의 유형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차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학생들의 신문 읽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보면, 신문을 매일 자주 읽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신문을 읽은 기간이 긴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경향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다양한 하위요소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2)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의 경험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NIE 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조사하였다.

우선, 가정에서의 NIE 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3>과 같다.

<표 63> 가정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249	3.32	.63	305	3.06	.66	t=4.76 p=.000
	목표 설정	248	3.05	.84	308	2.59	.84	t=6.44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50	3.23	.59	310	3.03	.64	t=3.90 p=.00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49	3.44	.71	311	3.01	.76	t=6.80 p=.000
	학습전략선택	245	3.06	.68	310	2.60	.79	t=7.26 p=.000
	학습실행의 지속성	243	3.11	.62	304	2.87	.60	t=4.46 p=.00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245	3.43	.63	312	3.27	.54	t=3.25 p=.001
	자기성찰	244	3.17	.71	310	2.73	.78	t=6.81 p=.000
	자기주도적 학습	225	3.24	.50	283	2.89	.49	t=7.97 p=.000

가정에서 NIE를 한 적 있는 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3.24인데 반해,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2.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NIE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소들 각각의 경우에도 NIE를 경험한 집단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NIE를 하는지 유무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NIE 경험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64>와 같다. 아버지와 NIE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3.30으로 하지 않는 학생의 2.9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아버지와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95	3.45	.62	436	3.13	.64	t=4.44 p=.000
	목표 설정	93	3.08	.88	440	2.74	.84	t=3.44 p=.001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95	3.30	.61	441	3.09	.62	t=2.99 p=.003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93	3.46	.78	443	3.16	.74	t=3.51 p=.000
	학습전략선택	94	3.17	.74	437	2.73	.74	t=5.23 p=.000
	학습실행의 지속성	94	3.21	.61	430	2.93	.62	t=4.03 p=.000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93	3.51	.63	441	3.31	.58	t=3.00 p=.003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94	3.24	.68	436	2.86	.76	t=4.40 p=.000
	자기주도적 학습	86	3.30	.51	401	2.99	.49	t=5.21 p=.000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들에서도 ‘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 관리’,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하위 요소들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와의 NIE 경험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65>와 같다. 어머니와 NIE 경험을 한 집단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3.28로 하지 않는 집단의 2.9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들에서도 ‘학습실행의 지속성’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1에서,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하위 요소들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65〉 어머니와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120	3.39	.61	420	3.13	.66	t=3.85 p=.000
	목표 설정	120	3.11	.86	421	2.72	.85	t=4.38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122	3.34	.62	423	3.07	.61	t=4.24 p=.00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120	3.46	.75	425	3.14	.76	t=4.07 p=.000
	학습전략선택	120	3.13	.70	420	2.72	.77	t=5.18 p=.000
	학습실행의 지속성	119	3.16	.60	413	2.93	.63	t=3.49 p=.001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120	3.46	.63	423	3.31	.58	t=2.29 p=.022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121	3.20	.71	418	2.86	.78	t=4.31 p=.000
	자기주도적 학습	111	3.28	.51	384	2.98	.50	t=5.36 p=.000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NIE 경험 유무에 따라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의 NIE 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6〉과 같다.

〈표 66〉 학교에서의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234	3.21	.61	312	3.16	.69	t=.909 p=.364
	목표 설정	233	2.94	.85	315	2.68	.86	t=3.56 p=.00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35	3.12	.61	316	3.12	.64	t=.117 p=.907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37	3.25	.74	314	3.15	.78	t=1.39 p=.164
	학습전략선택	232	2.89	.76	314	2.73	.78	t=2.47 p=.014
	학습실행의 지속성	228	3.00	.59	311	2.97	.64	t=.557 p=.578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232	3.32	.60	316	3.36	.58	t=-.877 p=.381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성찰	230	2.99	.78	315	2.87	.77	t=1.71 p=.088
	자기주도적 학습	210	3.09	.52	291	3.01	.52	t=1.72 p=.086

학교에서 NIE를 경험한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3.09로 하지 않는 집단의 3.0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각

하위 요소별 평균값도 학교에서 NIE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가 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 설정’, ‘학습 전략 선택’ 요소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목표 설정’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학습 전략 선택’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학교에서 NIE를 경험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중요 내용에 대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NIE 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정과 학교에서 NIE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서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학교의 NIE 경험에서는 일부 하위 요소들에서만 발견되는데 반해, 가정에서의 NIE 경험에서는 모두 발견되었다. 이 점에서 보면 중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NIE보다는 가정에서의 NIE가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NIE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NIE 유무와 달리, NIE를 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행하는 NIE 유형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NIE 활동 유형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 붙이는 활동’만 한 경우는 ‘오려 붙이는 활동’으로,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과 ‘신문을 읽고 원인과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까지 혹은 이 활동들만을 한 경우에는 ‘읽고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까지 혹은 이 활동만을 한 경우에는 ‘평가, 논술, 쓰기 활동’이라고 하였다. 연구진이 NIE 유형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뒤에 제시된 활동들이 좀 더 사고력과 활동의 깊이를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러한 집단 분류에 기초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을

한정하여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정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7>과 같다.

<표 67>에서 보듯이, ‘오려 붙이기 활동’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은 3.19,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31,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은 3.32로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좀 더 사고력과 깊이를 요하는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과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67> 가정에서의 NIE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오려붙이는 활동			읽고이해하는 활동			평가,논술,쓰기 활동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72	3.34	.62	54	3.34	.65	100	3.39	.58	F=.201, p=.818
	목표 설정	71	2.99	.87	54	3.07	.92	100	3.15	.76	F=.709, p=.493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73	3.22	.58	54	3.28	.65	101	3.28	.56	F=.227, p=.797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72	3.41	.76	53	3.46	.66	101	3.50	.68	F=.339, p=.713
	학습전략선택	72	2.98	.69	51	3.11	.73	100	3.15	.63	F=1.429, p=.242
	학습실행의 지속성	72	3.06	.55	50	3.14	.56	99	3.20	.61	F=1.064, p=.347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73	3.52	.58	51	3.43	.68	100	3.46	.61	F=.349, p=.706
	자기성찰	71	3.12	.71	52	3.32	.79	99	3.22	.62	F=1.191, p=.306
자기주도적 학습		64	3.19	.44	48	3.31	.56	93	3.32	.46	F=1.589, p=.207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과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모든 하위 요소에서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8>과 같다.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오려 붙이기 활동’ 집단의

평균은 3.03인데 반해,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과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은 3.14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 좀 더 사고력과 깊이를 요하는 NIE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조금 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소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의 각 하위 요소별 평균은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68〉 학교에서의 NIE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요소	하위요소	오려붙이는 활동			읽고이해하는 활동			평가,논술,쓰기 활동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욕구진단	86	3.17	.56	40	3.15	.70	90	3.28	.62	F=.888, p=.413
	목표 설정	85	2.90	.84	39	2.88	.91	92	3.01	.84	F=.479, p=.62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86	3.07	.57	39	3.17	.63	92	3.17	.66	F=.660, p=.518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86	3.20	.72	40	3.27	.76	93	3.30	.74	F=.472, p=.624
	학습전략선택	84	2.79	.74	39	2.95	.82	91	2.94	.70	F=1.106, p=.333
	학습실행의 지속성	83	2.94	.53	39	3.06	.64	89	3.01	.62	F=.553, p=.576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83	3.32	.57	38	3.37	.61	93	3.25	.62	F=.622, p=.538
	자기성찰	82	2.86	.78	39	3.03	.81	91	3.08	.76	F=1.837, p=.162
자기주도적 학습		77	3.03	.46	36	3.14	.59	81	3.14	.54	F=974, p=.379

구체적인 NIE 활동 유형과 달리 학생들이 NIE를 하는 목적 유형에 따라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과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와 ‘외국어나 한문 등을 익히기 위해서’를 묶어서 ‘교과 학습’으로, ‘사회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사회현상 이해’로, ‘논술이나 글짓기 등을 잘하기 위해서’와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를 묶어서 ‘논술, 사고력’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한정하여 NIE 활동 목적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9〉와 같다.

‘교과학습’ 집단의 평균은 3.11, ‘논술, 사고력’ 집단은 3.12로 나타났고 ‘사회현상 이해’ 집단의 평균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현상 이해를

목적에 수행된 집단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들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사회현상 이해’ 집단, ‘논술, 사고력’ 집단, ‘교과내용’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9〉 NIE 활동 목적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요소	하위요소	교과학습			사회현상이해			논술, 사고력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학습 계획	학습목구진단	29	3.19	.54	87	3.33	.60	153	3.23	.63	F=.932, p=.395
	목표 설정	27	2.86	.69	86	2.96	.84	154	2.96	.86	F=.175, p=.840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29	3.06	.52	87	3.25	.59	154	3.17	.56	F=1.354, p=.260
학습 실행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29	3.39	.69	87	3.36	.71	153	3.27	.69	F=.575, p=.564
	학습전략선택	29	2.85	.75	87	2.98	.73	151	2.29	.72	F=.394, p=.675
	학습실행의 지속성	28	3.07	.55	87	3.11	.58	148	3.05	.56	F=.324, p=.724
학습 평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29	3.35	.73	87	3.47	.60	151	3.40	.55	F=.615, p=.541
	자기성찰	27	3.12	.90	86	3.16	.80	151	3.01	.70	F=1.114, p=.330
자기주도적 학습		24	3.11	.41	82	3.24	.51	139	3.12	.48	F=1.598, p=.204

NIE를 행한 응답자에 한정하여 NIE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정이나 학교 모두에서의 활동 유형 중에서 ‘평가, 논술, 쓰기 활동’을 하는 집단이 ‘오려 붙이는 활동’이나 ‘읽고 이해하는 활동’에 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NIE 목적에 따른 유형에서는 ‘사회현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 ‘교과학습’이나 ‘논술, 사고력’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3. 중학생의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관계⁶⁾

부가적으로 중학생의 NIE와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응답한 중학생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중학생의 NIE 실태를 고려하여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1) 주관적 학업성취 실태

중학생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과별 자신의 성취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값은 3점이다. 분석 결과는 <표 70>과 같다.

<표 70> 응답자의 성별 주관적 학업성취

주관적 학업성취 인식	남자			여자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302	3.20	.94	264	3.44	.85	566	3.31	.90
사회	302	3.11	1.17	264	3.03	1.05	566	3.07	1.12
수학	301	3.01	1.21	264	2.73	1.07	565	2.88	1.16
과학	303	3.04	1.14	264	2.80	1.04	567	2.93	1.10
영어	302	2.94	1.23	264	2.98	1.13	566	2.95	1.18
전 영역	301	3.05	.93	264	2.99	.14	565	3.02	.86

응답자 전체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3.02로 나타났고, 국어 교과에 대한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는 3.07, 영어는 2.95, 과학은 2.93, 수학은 2.88순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이 3점인 것을 고려하면 중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업성취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주관적 학업 성취 평균은 3.05로 여학생의 2.9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6) 중학생의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 변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는 앞서 제시된 NIE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응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거의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자신의 학업 성취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여학생의 기대치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인지, 실제로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교과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국어가 3.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가 3.11, 과학이 3.04, 수학이 3.01, 영어가 2.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국어가 3.44, 사회가 3.03, 영어가 2.98, 과학이 2.80, 수학이 2.73 순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영어 교과에 대한 여학생들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학생별로 교과에 대한 선호나 실제 학업 결과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NIE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NIE의 경험이 주관적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 읽기와 같은 NIE를 위한 기본적인 경험,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경험, NIE 활용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1) 신문 읽기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

응답자들의 신문 읽기 정도와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신문을 읽는 정도와 신문을 읽어 온 기간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값을 살펴보았다. 우선, 신문 읽기의 정도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1>과 같다.

<표 71>에서 보듯이, 신문을 매일 읽는 학생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3.83으로 가끔 읽는 학생의 3.70과 거의 읽지 않는 편에 속하는 학생의 3.5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문을 매일 읽는 학생일수록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과별로도 신문 열독 정도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교과의 경우 매일 신문을 읽는 정도(매일 읽는 편: 3.78, 가끔 읽는 편: 3.21, 거의 읽지 않는 편: 2.84)에 따라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71〉 신문 열독 정도와 주관적 학업성취

주관적 학업성취 인식	거의 읽지 않는편			가끔 읽는편			매일 읽는편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286	3.16	.96	222	3.41	.76	54	3.79	.91	F=13.68 , p=.000
사회	287	2.84	1.09	221	3.21	1.11	54	3.78	1.00	F=19.83 , p=.000
수학	286	2.72	1.18	221	2.98	1.1	54	3.35	1.20	F=8.13 , p=.000
과학	287	2.80	1.09	222	2.99	1.08	54	3.37	1.19	F=6.71 , p=.001
영어	286	2.77	1.15	222	3.07	1.20	54	3.54	1.11	F=11.48, p=.000
전 영역	287	3.53	.94	220	3.70	.86	54	3.83	1.02	F=3.78 , p=.023

응답자들이 신문을 읽어 온 기간과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분석 결과는 〈표 72〉와 같다.

〈표 72〉 신문 열독 기간과 주관적 학업성취

주관적 학업성취 인식	1-2년			3-5년			6년 이상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69	3.36	.84	143	3.57	.75	45	3.51	.84	F=1.60, p=.203
사회	69	3.29	1.12	143	3.36	1.05	44	3.45	1.21	F=.303, p=.739
수학	69	2.93	1.10	143	3.10	1.12	44	3.20	1.17	F=.911, p=.403
과학	69	2.87	1.13	143	3.19	1.04	45	3.09	1.18	F=1.934, p=.147
영어	69	3.10	1.31	143	3.26	1.11	45	3.07	1.23	F=.640, p=.528
전 영역	59	3.03	.45	131	3.25	.50	39	3.27	.55	F=4.24, p=.016

〈표 72〉에서 보듯이, 신문을 6년 이상 읽은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평균 점수는 3.27로 1-2년의 3.03, 3-5년의 3.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문을 오랜 기간 읽는 집단이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이다. 각 교과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신문 읽기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신문을 오랜 기간 매일 꾸준히 읽는 집단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다른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 교과와 영어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다른 교과와 달리 '사회' 교과의 NIE와의 관련성이 높은 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2)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

중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NIE를 한 경험이 있는지와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가정에서의 NIE 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3>과 같다.

<표 73> 가정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성취

주관적 학업성취 인식	한 적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252	3.52	.90	313	3.15	.88	t=5.04, p=.000
사회	251	3.30	1.12	314	2.89	1.09	t=4.36, p=.000
수학	251	3.12	1.15	313	2.68	1.14	t=4.55, p=.000
과학	252	3.06	1.17	314	2.82	1.04	t=2.49, p=.013
영어	252	3.16	1.18	313	2.79	1.17	t=3.75, p=.000
전 영역	251	3.71	.89	313	3.57	.95	t=1.79, p=.073

가정에서 NIE를 한적 있는 집단의 경우 주관적 학업 성취가 3.71인데 반해, 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3.5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 영역에서의 NIE 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과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교과의 경우 가정에서 NIE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교과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의 NIE 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4>와 같다.

학교에서 NIE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는 3.60으로 하지

않는 집단의 3.6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교과별로 살펴보면, 국어를 제외한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경우 학교에서 NIE 한 적 있는 집단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 영역, 교과별 학교에서 NIE 경험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4〉 학교에서의 NIE와 주관적 학업성취

주관적 학업성취 인식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통계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237	3.31	.95	318	3.32	.87	t=-.137, p=.891
사회	236	3.12	1.09	319	3.05	1.13	t=-.751, p=.453
수학	236	2.93	1.18	318	2.86	1.12	t=.672, p=.502
과학	237	2.97	1.08	319	2.90	1.11	t=.766, p=.444
영어	237	2.98	1.20	318	2.94	1.16	t=.336, p=.737
전 영역	237	3.60	.89	318	3.66	.93	t=-.688, p=.492

중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경험 유무와 주관적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NIE 경험 유무가 전체 영역에서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과별로는 NIE 경험을 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NIE 활동 경험의 경우 교과별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국어와 사회 교과의 경우 NIE 경험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평균차가 높은 편에 속했다.

3) NIE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중학생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NIE를 하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가정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5〉와 같다.

〈표 75〉 가정에서의 NIE 유형과 주관적 학업성취

주관적 학업성취 인식	오려붙이는 활동			읽고이해하는 활동			평가,논술,쓰기 활동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74	3.47	.96	54	3.48	.92	101	3.60	.82	F=.570, p=.566
사회	74	3.26	1.04	54	3.39	1.17	100	3.28	1.07	F=.255, p=.776
수학	74	3.31	1.20	54	3.26	1.10	100	2.99	1.06	F=2.027, p=.134
과학	74	3.27	1.16	54	3.07	1.17	101	2.94	1.10	F=1.785, p=.170
영어	74	3.15	1.27	54	3.17	1.22	101	3.21	1.08	F=.058, p=.944
전 영역	74	3.29	.92	54	3.27	.88	100	3.20	.75	F=.237, p=.789

〈표 75〉에서 보듯이, ‘오려 붙이기 활동’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평균은 3.29인데 반해,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평균은 3.27,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평균은 3.20으로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교과별로 살펴보면,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의 경우 국어, 영어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경우 사회 교과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6〉과 같다.

〈표 76〉 학교에서의 NIE 유형과 주관적 학업성취

주관적 학업성취 인식	오려붙이는 활동			읽고이해하는 활동			평가,논술,쓰기 활동			통계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국어	86	3.17	.87	40	3.33	.88	93	3.44	1.02	F=1.862, p=.158
사회	86	3.16	1.07	40	3.10	1.08	92	3.08	1.14	F=.142, p=.868
수학	86	2.88	1.14	40	3.18	1.17	92	2.86	1.19	F=1.116, p=.329
과학	86	3.03	1.12	40	3.08	1.09	93	2.88	1.02	F=657, p=.520
영어	86	2.88	1.17	40	3.08	1.26	93	3.04	1.23	F=513, p=.599
전 영역	86	3.02	.83	40	3.15	.87	92	3.06	.89	F=.277, p=.758

NIE 활동 유형과 전체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관련성을 보면, 학교에서 NIE를 할 때 ‘오려 붙이기 활동’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3.02,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은 3.15,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은 3.06으로 나타났다.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교과별로 살펴보면, 국어 교과는 ‘평가, 논술, 쓰기 활동’ 집단이, 사회 교과는 ‘오려 붙이는 활동’ 집단이, 수학, 과학, 영어 교과는 ‘읽고 이해하는 활동’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4. 논의

지금까지 중학생들의 NIE 경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기 주도적 학습, 주관적 학업 성취 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발견과 이와 관련된 교육적 함의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발견

첫째, 중학생 응답자의 NIE 학습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확인하면 신문을 집에서 받아보는 경우가 3명 중 1명 정도이며, 신문을 매일 읽는 경우가 전체 10명 중 1명꼴이고, 신문을 읽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10명 중 7명꼴이었다. 신문에서 주로 읽는 면은 10명 중 7명꼴로 연예, 스포츠 면이라고 하며, 100명에 한명꼴로 사설을 읽는 정도였다.

둘째, 중학생 응답자 중 7명 중 2명 정도가 NIE를 들어 보았다고 하며, 신문활용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12명 중 1명꼴로 사회현상의 이해를 위해서, 9명 중 2명꼴로 논술과 글짓기에 도움이 되어서, 5명 중 1명꼴로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서, 12명에 1명꼴로 교과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하였다. NIE에 주로 이용하는 신문은 5명 중 3명이 종이신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가정에서의 NIE를 하는 정도는 9명 중 4명꼴이며, 하지 않는 경우가 9명 중 5명이다.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NIE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정에서 NIE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신문을 주로 오려 붙이는 활동으로 9명 중

7명꼴로 하며, 가장 적게 하는 활동은 기사를 비교, 평가하는 활동으로 8명 중 1명꼴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을 통해 NIE를 경험해 본 학생은 5명 중 1명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그 역시 대체로 한 학기에 1~2번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일 교과목은 7명 중 2명꼴로 응답한 국어 교과이다. 다음으로는 5명중에 1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사회 교과를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NIE 활동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려붙이기 활동이 많았고, 기사 비교하고 평가하기가 적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교육에서의 NIE를 경험한 중학생 응답자는 1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다. 사교육에서 신문을 이용하여 수업을 한 정도는 11명 중 5명꼴로 1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NIE 빈도에 비하여 빈도가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의 NIE 활동은 다양한 유형들이 이루어졌고 각 활동의 비율이 대체로 20~50% 정도를 나타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특화된 NIE 활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신문읽기 정도에서 거의 읽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매일 읽는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큰 차이(매일: 3.31, 거의: 2.92)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고, 신문을 읽은 기간도 6년 이상인 집단이 1-2년 읽은 집단에 비해서 차이(6년이상: 3.25, 1-2년: 2.97)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가정에서의 NIE 유무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큰 차이(유: 3.24, 무: 2.89)를 보인다. 또한 학교에서 NIE 경험(유: 3.09, 무: 3.01)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차이가 거의 없어서 NIE의 경험은 가정에서의 경험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련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NIE 활동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련성은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간에 차이는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낮은 단계의 활동으로 이야기되는 오려 붙이는 활동(가정: 3.19, 학교: 3.03)보다는 높은 단계로 이야기되는 평가, 논술, 쓰기 활동(가정: 3.32, 학교: 3.14)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NIE 활동 목적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목적 인식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교과학습: 3.11, 사회현상 이해, 3.24,

논술, 사고력: 3.1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현상 이해를 NIE의 목적으로 인식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홉째, 신문읽기 정도에서 거의 읽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매일 읽는 집단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큰 차이(매일: 3.83, 거의: 3.53)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고, 신문을 읽어온 기간도 6년 이상인 집단이 1-2년 읽은 집단에 비해서도 차이(6년 이상: 3.27, 1-2년: 3.03)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났다.

열 번째, 가정에서의 NIE 유무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차이(유: 3.71, 무: 3.57)를 보인다. 반면, 학교에서 NIE 경험(유: 3.60, 무: 3.66)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지 않은 경우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열한 번째, 가정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 차이(오려 붙이는 활동: 3.29, 읽고 이해하는 활동: 3.27, 평가, 논술, 쓰기 활동: 3.20)를 보인다. 반면, 학교에서의 NIE 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학업성취도에서는 읽고 이해하는 활동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등 NIE 관련 함의

NIE와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NIE 학습 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그리고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시된 연구 결과를 통해 중등 NIE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여전히 중학생들의 NIE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이다. NIE에 대해 들어본 학생이 조사대상자의 28.1%에 불과하고 가정 또는 학교에서의 NIE 경험을 한 학생이 50%에 못 미친다. 본 연구결과인 NIE의 경험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둘째, NIE 여부와 상관없이 신문을 가까이 접하고 일정하게 매일 읽는 것이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주관적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변수라는 점이다. 단순히 신문을 매일 읽어서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인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아서 신문을 매일 읽는 것인지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학생의 경우 신문을 매일 읽는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문 읽기를 위한 홍보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NIE를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신문과의 접촉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문 읽기를 위한 홍보나 지원방안 마련은 가정이나 학교 모두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가정이나 학교에 신문을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거나 신문 읽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문을 효과적으로 잘 읽는 것과 관련된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NIE의 경험 유무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상당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학생들에게 NIE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NIE 경험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NIE의 특징을 파악하여 학교에서도 그러한 특징들을 반영해 보는 것이다. 학교에 비해서 가정에서의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과 보다 큰 연관성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기회의 제공, 개별학생 특성에 대한 배려,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등이 언급되는데 가정에서의 NIE는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NIE보다 개별학생 특성에 대한 배려,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등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NIE는 개별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적합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교에서는 전체 학습자의 평균적인 특징에 맞춘 활동이 제공되어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NIE는 교사에 의해 설계된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NIE에 비하여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편에서는 가정에서의 NIE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안내하고 학교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NIE 활동 과정을 보다 정련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중학생의 경우 NIE 활동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는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NIE 활동 유형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차이는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이유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NIE 활동 유형이 주로 오려 붙이는 활동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이 다른 활동 유형을 경험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NIE 관련 사례 연구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NIE 활동 방법을 사용했을 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가 향상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NIE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NIE 활동 유형별 다양한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사교육에서의 NIE 활동은 가정과 학교에 비교해서 전체 경험의 절대적인 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활동 유형별로는 그 빈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이는 아무래도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가정이나 학교보다 관련 활동을 위한 교재 개발의 여건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NIE 활동 방법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실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실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1. 요약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많지 않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 선택과 구성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신문을 학습의 소재나 내용으로 활용하는 NIE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교 6학년(539명)과 중학교 2학년(566명) 학생을 대상으로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된 연구 방법은 질문지 조사로서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지(4개 영역 : 배경변인, 신문 읽기 및 가정, 학교, 사교육에서의 NIE 경험, 주관적 학업성취도 수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NIE 학습 유형,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와 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신문 읽기와 가정, 학교, 사교육에서의 NIE 경험은 높지 않았다. 응답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절반 정도가 신문을 읽는편에 속했고, 가정, 학교에서의 NIE 경험이 절반 정도에 속했다. 구체적인 활동면에서도 신문 읽기의 경우 주로 연예 및 스포츠면이 비율이 10명중에 7명꼴로 나타났고 정치, 경제, 사설을 읽는 비율은 100명에 1명 정도가 매우 낮았다. NIE 경험면에서도 오락 놀이기 활동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3.27점(남학

생: 3.23, 여학생: 3.32)인데 반해, 중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3.04점(남학생: 2.99, 여학생: 3.11)으로 초등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3.50점(남학생: 3.53, 여학생: 3.49)인데 반해, 중학생은 3.02점(남학생: 3.05, 여학생: 2.99)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이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신문 읽기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응답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신문을 매일 읽는 집단과 읽어 온 기간이 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응답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가정에서의 NIE 경험 유무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보다 가정에서의 NIE 경험(중학생: 44.7%, 초등학생: 54.4%)이 적었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학교에서의 NIE 경험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 요소에서 부분적인 통계적 유의미성이 드러나는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있어서는 가정에서의 NIE가 학교에서의 NIE보다 관련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NIE 유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NIE 경험 유무만큼의 큰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가정에서의 NIE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유형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차이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NIE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NIE 유형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NIE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었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논술, 사고력을 NIE의 목적으로 인식한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3.37)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생의 경우 사회현상 이해를 NIE의 목적으로 인식한 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3.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NIE와 주관적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신문 읽기가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응답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신문을 매일 읽는 집단과 읽어 온 기간이 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주관적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응답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가정에서의 NIE 경험 유무가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학교에서의 NIE 경험에 따른 주관적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가정에서의 NIE 경험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NIE 경험도 주관적 학업 성취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보였지만 중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주관적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가정에서의 NIE가 학교에서의 NIE보다 관련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NIE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학생들의 NIE 학습 유형, NIE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주관적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NIE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 이를 통해 가정 및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NIE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요청된다.

첫째, 가정과 학교에서의 NIE 확산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있어서의 신문 읽기 자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재나 활동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NIE의 중요성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연구 결과로 제시되고, 이 연구 결과 또한 NIE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지만, 학교나 가정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NIE는 여전히 좋은 수업 방법의 하나로만 남게 된다. 신문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NIE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누구나 해 볼만한 방안으로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이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자기주도적 NIE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에서의 NIE 경험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는 학교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가정에 부여할 수 있는 NIE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신문의 NIE 지면을 자기 주도적 학습 지면으로 구성 및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NIE 대회 등에서 주로 수업 방법과 관련해서 교사의 NIE 실천 등이 많이 공모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주도적 NIE 학생 학습 방법에 대한 공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다각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의 NIE 활동을 좀 더 정련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된 연구결과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NIE보다 가정에서의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보다 큰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특성상 학생의 자율성이 더 많이 반영되는 가정에서의 NIE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더 발휘 할 수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NIE 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 접목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NIE를 좀더 다각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가정에서의 NIE 활동이 가지는 특징, 과정상에 들어나는 학습자의 변화 등에 대해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특징들을 학교 NIE 활동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NIE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가정이나 학교에서 NIE의 다양한 활동 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NIE 활동은 주로 오려 붙이는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NIE 활동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활동 유형으로 실제로 활용할 기회가 많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활동 유형들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부가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NIE 활동 유형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별 가이드북을 제작한다거나 교과별로 주요 학습 주제에 따른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과정과 학습자의 변화에 대한 요인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실험에 근거한 연구이기 보다는 조사에 근거한 연구라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NIE의 구체적인 영향을 강하게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점에서 향후 NIE 유무별, NIE 유형별로 학급을 나누어 실험을 하고, 이에 따른 사전 및 사후 조사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조사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이나 조사 연구와 달리 참여 관찰이나 면접법을 활용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NIE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도 실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NIE를 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을 찾아내어 그 학생의 NIE 활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NIE 활동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유용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NIE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NIE 방법을 적용해 보고 이를 실행연구 방식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로 학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NIE의 구체적인 적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원·노정선(2000). NIE가 자료 해석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5학년 사회과를 중심으로. **초등사회과교육**, 12, 295-316.
- 강석우 외(2004). **NI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신일(2001). '학습주의' 관점에서 본 현대교육제도의 문제. 이성진(편). **한국교육학의 맥**(pp. 205-227). 서울: 교육과학사.
- 김유통·박정순(1999). **재미있는 NIE 교실**. 서울: 중앙 M&B.
- 김주후·남궁지영(2008).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53-166.
- 김주후 외(2006).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설명 변인 및 유형화 분석. **교육방법연구**, 18(2), 221-238.
- 김홍원(1996). 자율 학습 능력의 개념 정립 및 신장 방법 탐색. **사회과교육**, 29, pp. 315-341.
- 김효희(2007). **지리과에서 신문포트폴리오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 고등학교 환경과 자연재해 단원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국향(1999).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교육과정평가연구**, 2(1), pp. 27-38.
- 박한숙(2003).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업 참여 기술. **열린교육연구**, 11(1), pp. 81-100.
- 박현정(2005).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습전략의 사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한국교육**, 32(1), 203-222.
- 방희원(2000). **사회과 교사를 위한 NIE**. 서울: 연문출판사.

- 배은주(2004). 청소년 자기 주도적 학습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pp. 247-279.
- 서태열 외(2009). **NIE 수업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 한국신문협회.
- 성태모(2003). 자기 주도적인 NIE 학습 방법 연구: 통합적인 국어 능력 향상 모형. **교육연구**, 26, 115-18.
- 송인섭(2006). **자기 주도적 학습**. 서울: 학지사.
- 신종호 외(2006).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심미자(2000). **고등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선수학습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학습선호도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옥령·이정균(1997). **신문은 내 친구**. 서울: 중앙M&B.
- 심혜숙·신영애(2006). 성격 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의 관계. **한국심리유형 학회지**, 제13집, pp. 25-44.
- 양명화황정규(2002). LISREL을 이용한 자기조절학습의 개념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6(2), 259-290.
- 양애경(2007). **감성지능, 학습동기, 학습자 스트레스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양애경·조호제(2010).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한국교육논단**, 8(3), pp 61-82.
- 오삼삼구병두(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 변수의 탐색. **교육학 연구**, 37(4), 99-122.
- 유효현(2005). **학업성취에 대한 관련변인의 예측력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재 외(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지혜(2009).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종(2006). **NIE원론 I**. 서울: 도서출판 통키.
- 정문성 외(2010). **NIE가 학업성취와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서울: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구정화(2005). **학생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구정화·박미영(2004). **학교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구정화·이태종(2006). **신문사 NIE 알아보기**. 한국신문협회.
- 정미경(2007). 자기조절학습과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간의 관계. **영재와영재교육**, 6(1), pp. 163-182.
- 조미아(2006).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pp. 53-71.
- 조미아(2007). 학년별 독서 방식이 어린이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pp. 251-271.
- 최상희(2009).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신문자료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희·구정화·심옥령(2009). **교사를 위한 학교 NIE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한국신문협회.
- 최상희·오주석(1999). **교사·학부모·대학(원)생·일반인을 위한 NIE 지도 전략**. 서울: 도서출판 대일.
- 최영재 외(2007). 신문열독이 대학생들의 사회지식 습득 및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4, pp. 243-276.
- 최현숙(2003). **사회과에서 신문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가능성과 한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신문협회(2005). **NIE 가이드북**. 서울: 한국신문협회.
- 최상희 (2003). **NIE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태종 (2004). **NIE 신문읽기 세상읽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태종 (2006). **NIE원론 II**. 서울: 도서출판 통키.
- 한승희(1999). 학습 생태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성인학습. 이성진·김계현(편). **교육심리학의 새로운 쟁점과 이론**(pp. 341-360). 서울: 교육과학사.
- 허남진(2004). **학습자 변인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umert, J., Fend, H., O'Neil, and Peschar, J. L. (1998). *Prepared for life-long learning: Frame of reference for the measure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as a cross-curricular competency in the PISA Project*. Paris: OECD.
- Bidwell, C. E. & Kasarda, J. D. (1980).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the effect of schools and schooling.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88, 401-430.
- Candy, P.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rosby, D. (1994). *Creative your own class newspaper*. Tennessee: Incentive Publication, Inc.
- DiPerna, J. C. (1999). *Testing student models of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Guglielmino, L. M. (199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Knowles, M. (1975). *Self-direction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 New York: Association Press.
- Long, H. B. & Walsh, S. M. (1993). Self-directed learning research in the community junior college: Descripti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7(2), 153-166.
- Long, H. B. (1992). Philosophical, psychological and practical justification or studying self-direction in learning, In Long and Associates(eds.), *Self-directed learning application and research*(pp. 9-24.). Norman, OK: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 Morris, S. S.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a nontraditional higher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Oklahoma.

Olson, M. (1985). *Using the newspaper to teach social studies*. Dale Seymour Pub.

Osborn, P. (1997). *School newspaper adviser's*. San Francisco : Jossey-bass.

Willamson, S. N. (2007). Development of a self-rating scale of self-directed learning. *Nurse Researcher*, 14(2), pp. 66-83.

Zimmerman, B. J. & Schunk, D. H. (1989). *Self-regulated of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presskorea.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pf.or.kr>).

부록- 질문지

신문 활용 교육(NIE)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신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순수한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신문활용교육 연구팀

문의: 031) 470-6224 (경인교육대학교 구정화 교수)

I.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V 해 주세요. 질문에 사용된 신문의 형태는 종이신문,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신문 모두를 포함합니다.

1. 나는 ____1) 남자 ____2) 여자
2. 나는 ____1) 초등학생 ____2) 중학생
3. 내가 사는 곳은 ____1) 서울 ____2) 경기도 ____3) 인천
4. 우리 집은 일간(매일 오는) 신문을?
____1) 받아본다 ____2) 받아 보지 않는다
5. 나는 신문 활용 교육(NIE)에 대해 들어본 적이
____1) 있다 ____2) 없다

6. 나는 신문을?

___1) 매일 읽는 편이다(6-1번 질문으로)

___2) 가끔 읽는 편이다(6-1번 질문으로)

___3) 거의 읽지 않는 편이다.

6-1. 내가 신문을 읽기 시작한 것은 ()년부터이다.

6-2. 나는 주로 신문의 ___1) 정치면 ___2) 경제면

 ___3) 사회문화면(교육포함) ___4) 연예, 스포츠면

 ___5) 사설 ___6)기타 면을 읽는다.

II.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신문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해주세요.

<가정에서>

1. 신문을 활용해서 숙제를 한 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___1) 매우 자주 ___2) 자주 ___3) 때때로

___4) 거의 없음 ___5) 전혀 없음

2. 부모님과 함께 신문을 활용하여 숙제나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1) 아버지와 ___1) 매우 자주 ___2) 자주

 ___3) 때때로 ___4) 거의 없음 ___5) 전혀 없음

2) 어머니와 ___1) 매우 자주 ___2) 자주

 ___3) 때때로 ___4) 거의 없음 ___5) 전혀 없음

3.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해서 숙제를 했는지 해당 방법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___ 1)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
- ___ 2)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
- ___ 3)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
- ___ 4)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
- ___ 5)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
- ___ 6)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
- ___ 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학교에서>

4. 신문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 ___ 1) 있다(4-1번 질문으로)
- ___ 2) 없다(6번 질문으로)

4-1. 학교 수업 중에서 신문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 ___ 1) 1주일에 1~2번 정도 ___ 2) 1달에 1~2번 정도
- ___ 3) 한 학기에 1~2번 정도 ___ 4) 1년에 1번 정도

4-2. 어느 과목의 수업에서 신문을 주로 활용하였는지 하나만 표시해주세요.

- ___ 1) 국어 ___ 2) 사회 ___ 3) 수학
- ___ 4) 과학 ___ 5) 영어 ___ 6) 예체능

5.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했는지 해당 방법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___ 1)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
- ___ 2)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
- ___ 3)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
- ___ 4)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
- ___ 5)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
- ___ 6)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
- ___ 7) 기타(적어 주세요: _____)

<학원이나 과외에서>

6. 신문을 활용해서 학원이나 과외에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 ___ 1) 있다(6-1번 질문으로)
- ___ 2) 없다(8번 질문으로)

6-1. 학원이나 과외 수업 중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 ___ 1) 1주일에 1~2번 정도 ___ 2) 1달에 1~2번 정도
- ___ 3) 한 학기에 1~2번 정도 ___ 4) 1년에 1번 정도

7. 학원이나 과외 수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했는지 해당 방법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___ 1) 신문 기사나 광고, 사진 자료 등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
- ___ 2) 신문을 읽고 정보나 단어, 육하원칙 등 찾기, 제목과 기사 짝 맞추기 등 활동
- ___ 3) 신문을 읽고 원인 및 결과, 줄거리, 주제 등을 이해하는 활동
- ___ 4) 신문을 읽고 기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
- ___ 5) 신문을 이용하여 논술문을 만드는 활동
- ___ 6) 신문을 읽고 관련 기사 쓰기, 새로운 기사 만들기, 가상 인터뷰 기사

쓰기 등 활동

____7) 기타(적어 주세요:)

<가정, 학교, 학원 및 과외에서>

8. 신문을 활용해서 수업이나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____1)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 ____2) 논술이나 글짓기 등을 잘하기 위해서
- ____3) 사회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 ____4)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 ____5) 외국어나 한문 등을 익히기 위해서
- ____6) 재미있게 학습하기 위해서
- ____7) 기타(적어 주세요):

9. 신문을 활용해서 수업이나 공부할 때 어떤 신문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 ____1) 종이신문
- ____2)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신문

Ⅲ. 나의 과목별 성적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에 V 해 주세요.

교과목	매우 못하는 편	못하는 편	보통인 편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IV. 다음 질문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곳에 V
해 주세요.

문항	내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배우는 것을 피한다.					
2	문제가 어렵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낸다.					
3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배울 시간을 내서 배운다.					
4	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5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 때문에 공부한다.					
6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할 때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하루 이상 걸리는 공부나 숙제를 할 때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나 시간을 미리 결정해 둔다.					
8	매일 그날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생각하며 계획을 세운다.					
9	내가 세운 계획대로 공부를 한다.					
10	공부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문항	내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1	공부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전, 전과, 기타 참고서를 찾아본다.					
12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며 친한 친구와 공부한다.					
13	수업 중에 모를 것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					
14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를 설득해서라도 배운다.					
15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보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16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준비물을 스스로 챙긴다.					
17	공부를 시작할 때, 필기도구를 잘 갖추어 놓고 한다.					
18	공부가 잘 되는 장소로 가서 공부한다.					
19	오늘 하기로 정해 놓은 일은 모두 한다.					
20	숙제를 제 시간에 맞게 한다.					

문항	내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지주	매우 자주
21	공부할 때 하기 싫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					
22	공부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23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책을 읽다가 중요한 말이나 문장이 나오면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칠한다.					
24	공책에 적은 내용을 시험 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읽어본다.					
25	그 날 수업한 내용을 복습한다.					
26	숙제나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27	무슨 일이 있어도 숙제를 못해가는 적이 없다.					
28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끝낸다.					
29	처음엔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싫증이 나면 그만둔다.					
30	한 가지 일을 하다기도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					
문항	내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지주	매우 자주
31	성적이 나쁘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					
32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시험에는 운이 많이 작용하므로 운이 좋기만 바란다.					
33	공부가 잘 되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한 정도로 공부한다.					
34	공부가 잘 되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					
35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36	성적이 왜 잘 나왔는지, 혹은 왜 못 나왔는지를 스스로 알아본다.					
37	내가 공부한 것의 결과를 보고 학습방법이나 계획을 스스로 수정한다.					
38	성적이나 결과를 내가 정한 목표 수준과 비교한다.					
39	이미 끝난 과제라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40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정확하게 맞춘다.					

감사합니다. ☆